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敎育稅案 再調整하겠다"

權 民正총장 財産稅의50% 일관적용엔 問題點

"高所得層 더많이 賦課해야"

일정規模주택엔 輕減 그외는 累進率로"

【光州】 權正達民正黨사무총장은 30일 『오는 정기국회에서 교육세법안을처리한다는것이 黨의기본방침이지만이에 앞서 국회재무위에서 공청회나 공개간담회를열어 교육세가 합리적으로 부과될수있도록재조정하겠다』고말했다.

◇權民正사무총장

權총장은 이날하오 全南海南·珍島지구당 개편대회 참석에 光州의 全南지부사무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利子배당소득, 담배, 洋酒등에 교육세를 부과하는데는 별문제가 없는것으로 알지만 재산세의 50% 일률부과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서민층의 주택이나 생활영위를 위한 작은부동산에 대해서까지 교육세를물게 하는것은 큰부담이 될것으로 보이며 高소득층에 대해서는 더많이 부과해야한다는 의견도 있는것으로 안다』고 말해 일정규모이하의 주택에는 輕減조치하고 그외에 대해서는 累進率을 적용, 差等부과할 것을 시사했다.

權총장은 또 정치자금 조달을위한 黨 후원회의 독자구성문제에 언급 『오는 8월 20일까지 3백50명규모로 일단 후원회를 발족,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회원수를 법정한도인 1천명까지 늘려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회원은 ▲法人 7백명 (부담액 3백만원 이하) ▲기업인 2백10명 (부담액 1백만원 이하) ▲저명인사 90명 (부담액 5만원 이상) 등으로 구성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내주초에 民韓·국민兩黨의 사무총장과 만나 他黨의 후원회구성문제에 관해서도 논의하겠다고말했다.

徵收시기와 방법등 여론따라 柔軟性을
李民正政策委의장

李珍雨 民正黨정책위의장은 30일 『교육세의 징수시기와 방법은 여론에따라 柔軟性이 있어야한다』고 말하고 『재무부案중 酒稅, 담배값, 이자배당세에 부과하는 것은 이해하나 재산세에 관한 부분은 「6大都市」「50%부가」모두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6大都市에만 부과할경우 餘他도시에 거주하는 부유층이 제외되기때문에 公平課稅원칙에 어긋나고 일률적으로 50%씩 부과하는것도 비합리적이라는얘기가있다』면서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반대여론이 높으면 국민이원하는 방향으로 재조정하고시기도 늦춰야할것』이라고 덧붙였다.

새로운 目的稅엔 拒否 民韓

民韓黨은 30일상오 국회재무위소속의원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교육세案을 논의한끝에 교육재정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새로운 目的稅를 신설하는데는 반대키로 의견을 모았다.

民韓黨은 오는8월1일의 정책심의회산하 재정및 문공위연석회의에서 대체적인 黨論을 결정한후 4일의 黨務會議에서 최종확정할 방침이다.

회의후 財務委 간사인 金承穆의원은 『교육세안이 限定稅이지만 永久稅가될 가능성도 있고 또다른 目的稅를 만들어낼 가능성과함께 한계에달한 국가의 擔稅능력을고려, 반대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는 『民韓黨은 곧 그에대한 代案을 마련하여 발표할 것』이라고 밝히고 『정부는 조세감면규제폭을 줄이고 不要不急한 財源을 교육세로충당해야한다』고 주장했다.

民權黨도 調整촉구

民權黨은 30일 교육세신설에대한 對정부건의에서 稅政은 租稅衡平의원칙에서 소득재분배기능을 강화하여 서민을보호하고 중산층을 육성하는 복지세제방향으로 다루어야한다고 주장, 저소득층 輕課, 고소득층 重課의 수익자부담원칙으로 재조정 할것을 촉구했다.

敎育稅 신설 全面반대 국민

국민당은 30일 총재단, 정책위의장단, 총무단 국회文公및 경제관계위원 연석회의를열어 교육세新設에 반대하기로 黨論을 정하고 새로운 財源의 확보책으로 지방교육교부금을 부활시킬것등 代案을마련, 정부에 촉구키로 했다.

국민당은 또 관계자등 각계의견을종합, 구체적인 방안을 앞으로 立法심의과정에 반영시키기위해 이날7명으로된 교육세審議小委(위원장 李殷秀)를 구성했다.

국민당은 이날 過密교실해소, 교직자처우개선등 교육세가 의도한 목표와 취지는 인정하나 현재의 불안한 경제상황과 국민의 擔稅능력(擔稅率18·4%)을 고려할때 새로운 稅種의 신설은 용납될수 없으며 또한 재산세액의 50%부가등 문제점으로 지적했던 제반모순과 불합리성을 감안해 교육세신설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당은 교육투자財源의 확보책으로 ▲72년8·3조치로인해 73년부터 폐지된 지방교육교부금을부활시키고 ▲방만한 행정기구중 대폭축소, 제반업무를 민간에 전환하고 각종보조금 (81년 민간경상보조금 1천4백16억) 및 출연금 (81년 2천3백40억) 제도를 대폭 정비개선해 정부예산을 절감할것과 ▲年間 5천억규모의 조세감면액을 3분의1로 축소조정하여 교육재원으로 충당하고 ▲稅制개혁을 단행하여 稅源확충, 누락稅源의 적정포착등을통해 일반조세의 增收로 교육투자재원을 확보할것등 4가지代案을 정부에 촉구키로했다.

景氣 夏閑期지나야 活氣띨듯

企劃院발표 뚜렷해지던 回復勢둔화

全經聯 輸出好調로 物量不足우려
商議 內需産業 오히려低調전망

夏閑期로 접어들면서 국내경기회복세가 약간 주춤해지고있다. 경제기획원이 30일 발표한 6월중 경기상황을 나타내는 경기종합지수에 따르면 경기동향을 나타내는 國行지수가 5월의0·3%에이어 6월에도 0·4%의 전월대비증가에 그쳐 3월의 1·1%, 4월1·4%등으로 다소뚜렷해지던 경기회복세가 夏閑으로접어들면서 상당히 둔화되고있다.

이는 수출호조로 전월보다 [illegible] 1%, [illegible] 1%, 제조업 공장가동률0·1%, 고용 0·6%등으로 계속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있음에도 불구하고 0·8%감소된 서울도·소매거래동으로 나타나는 국내소비가 음식료품, 의복등을 비롯 크게떨어졌기때문이다.

이와함께 지금까지 경기회복을 리드해온것으로 알려진 정부工事조기發注도 夏閑과 더불어 금년사업이 이미 거의종결단계에 이르러 이날발표된 6월중의 주요 대규모 1백70개건설업체 국내공사受注額도 전월보다 8·9% 감소한것으로 나타났다.

기업투자 마인드를 반영하는 國産기계發注도 造船부문을 제외하면 6월들어 5·3%감소한것으로 나타났는데 해외受注증가로 好況을 누리고있는 造船부문을 포함하면 88·3%가 늘었다.

한편 약3개월후의 경기동향을 예고하는 先行지수는 전월대비 수출신용장 5·4%, 건축허가면적 0·8%, 통화량 1·2%등의 감소추세에도 불구, 輸入認證발급1·4%, 株價騰勢 14·4%, 활발한해외 造船受注를 포함한 기계受注1%, 수출 0·7%등의 증가로 계속 1%가 상승한것으로 나타나 9月이후 하반기경기가 계속회복세를 지속할것으로전망되었다.

한편 全經聯이 최근 25개 주요품목의 4백개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5, 6월들어 수출신용장 來到실적이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반기들어 수출은보다 활기를 띠어 일부품목은 물량부족 사태까지 예상되며 금년전체로는 작년대비 23%가 늘어난 2백13억5천만달러에 달하는 수출실적 (목표 8억5천만달러 초과)을 이룩할수 있을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商議는 최근 섬유화학 기계등 주요20개업종을 대상으로한 조사에서 오는3·4분기중에는 자동차 電子合板 석유화학부문에서 생산이 활발해서 생산은 9·3%, 가동률은 작년동기보다 0·5%, 2·4분기보다는 0·6%정도 소폭호전되겠지만 內需판매는 작년동기보다는 늘지만 2·4분기보다는 오히려 저조할것으로 전망했다. 또 수출전망은 최근의 신용장 來到실적에비춰 우려를 표명했고 고용도 작년동기보다 크게 개선될것으로 기대할수 없을것이라고 보았다.

바누아투 獨立1돌 全대통령, 祝電보내

全斗煥 대통령은 30일 제1회 독립기념일을 맞은 바누아투 共和國의 소프마누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냈다.

오늘 日蝕…全國서 볼수있다

낮 11시23분부터 2시간43분간

部分日蝕으로

26년만의 개기일식이 31일낮11시23분부터 2시간43분 (서울시간)에 걸쳐 일어나 우리나라 전역에서는 부분일식으로 볼수있게된다. [illegible]

새旅券 내일부터 실시

商社·言論 파견敎員등 家事補助人도 발급

외무부는 30일 정부의 외여행화대방침에따라 발표, 학생단기여행, 관광목적여권을제외한 모든여권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규정하고 이기간안에는 공항에서 出國신고만으로 언제든지 해외여행을 할수있도록하는 내용의 旅券法施行規則을 확정했다. 8월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여권법시행규칙은 현행 3년인 소양교육동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고 여권발급신청자가 17세미만이거나 55세이상의 여자, 또는60세이상의 남자인 경우등엔 소양교육등의 제출을 생략토록했다.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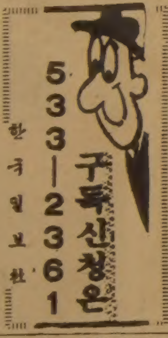
附價稅 제도적 改善

成長沮害要因개선 經濟分野14항發表 토지鑑定價 一元化

産業別 減免稅조정
豫算편성 대폭절감

成長發展沮害要因改善심의위원회는 30일 부가가치세의제도개선과 소득세 법인세율의 조정, 相續稅制를 보완하는등 稅制를 개편하고 産業別 業體別로 직접 減免혜택을 주어온 租稅減免제도를전면적으로 조정하는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경제분야14개주요과제의 개선방향확정발표했다. 이들과제중에는 公共목적으로 收容한土地의 補償방법을 개선, 土地鑑定및 평가제도를 一元化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우선 國營기업의 경영개선방안으로 정부기업의 公社化와 함께 國營기업의 民營化및 경영조직을개편하는 한편국영기업에 民間기업의 利潤제도와 비슷한인센티브제도를확대도입하고합리적인경영평가제를도입할 예정이다. ★관련기사2면

[illegible]



농경지 賃貸借制도

[illegible]

社會漫評

新製品 만들기로…

地平線

[illegible]

한국일보 무료배부
—우편마이지라중—

구독신청은
(416)
533·2361

ROLEX

결혼·약혼 예물은 은하 보석상에서

오늘의 금은 시세
금 : 온스당 US 391.
은 : 온스당 US 8.40

은하 보석상
635 BLOOR ST
534-997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 금
교육, 은퇴, 오기지 적금.
부 동 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완 인 태 권 도

完人跆拳道

Wanin Taekwon-Do

이는
이경태 사범이
아직까지도 최일선에서 지도하는 사범이요 태권도
전문인으로써 태권도 수련의 교육적 가치가 중하고
태권도의 과학화와 무도철학의 정립을 위한 사명감이
중함에 따라 연구·정진하여 온 바를 체계화 시킨
태권무도 입니다.

1. 완인태권도는 수련상의 제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 무술을 익히고 그 과정으로서 무예를 닦는 것을 정도로 합니다.
2. 완인태권도는 무술및 무예로서의 지도방법과 기술적인 내용을 과학화 한 무도이며 이의 절대적인 우선을 위하여 계속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3. 완인태권도는 정신적인 발달및 인격적 확립을 위하여 무도철학을 정립·개발시킵니다.

Kyong Lee Taekwon-Do Centre

세계태권도연맹·카나다태권도협회가입 회원 도장

다운타운도장	615 YONGE ST. (at Isabella St.)	929-5511
북부도장	2281 YONGE ST. (at Eglinton Ave.)	483-4002
동부도장	1865 LAWRENCE AVE. E. (at Pharmacy Ave.)	759-2500

※962-3000으로 문의하셔도 됩니다(통화중이나 응답이 없을 때).

관 장 : 이 경 태
이곳 토론토에서 최초로 태권도 보급(1967)
건국대학교 태권도부 사범
대한태권도협회 심판위원
제3회 세계태권도대회 카나다국가팀단장
카나다태권도협회회장(1977~1980)

지도사범 : 이 현 우 태권도5단

조 사 범 : 존·웨잉거스트(3단), 랜디·매다(3단),
멜·암바탈리(3단)

休戰 6일만에 戰鬪再開
레바논 上空서 空中戰

시리아機 1대 擊墜 / 미사일로 이機 공격

시리아 이스라엘

【텔아비브29日AP·AFP=聯合】 이스라엘공군의 팬텀 제트전투기들은 29일 메나헴·베긴수상이 레바논領空에 대한 정찰비행을 계속하겠다고 공언한것과 때를같이해 베이루트북부 레바논상공에서 시리아공군 미그25 제트전투기들과 치열한 공중전을 벌여 미그機 한대를 격추시키고 또다른 한대를 크게 파손시킴으로써 레바논·이스라엘국경전 휴전발효 6일만에 중동평화에 또다시 짙은 암영을 던졌다。

이와함께 레바논정부의 한대변인은 이스라엘 공군소속 무인정찰기 한대가 이날 레바논中部 베카계곡상공을 비행하던중 레바논주둔 시리아군이 발사한 소제 「샘」6 지대공미사일에 맞아 격추됐다고 발표했으나 이스라엘은 레바논측의 이같은 주장을 부인했다。

이스라엘공군기의 이날 시리아기 격추사건은 이스라엘과 레바논영내 팔레스타인게릴라들이 국경을 사이에 둔 「15日전쟁」을 전면 종식키로 하는 내용의 휴전안이 발효된지 6일만에 발생한 가장 중대한 휴전위반 사건이다。

이스라엘軍사령부의 한대변인은 이에앞서 최근 이스라엘측의 레바논 정찰비행은 미국무성의 지지하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따라서 이스라엘기의 레바논영공 정찰비행이 휴전위반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바있다。

팔、이領內활동再開 / 버스공격 4명負傷

【텔아비브29日UPI=聯合】 팔레스타인게릴라들은 對이스라엘휴전협정이 발효된이래 최초로 이스라엘내에서 게릴라활동을 재개, 29일밤 예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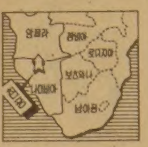
이機의 시리아機격추非難 / 美 "반복되선 안될 不祥事"

【워싱턴29日AP·AFP=聯合】 미행정부는 29일 이스라엘전투기들이 이날 시리아의 미그25전투기를 격추시킨데 대해 이는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되는 불상사』라고 비난했다。

美국무성의 딘·피셔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 『중동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떠한 행동에 대해서도 …』 강조했다。

그는 휴전이 체결된지 6일밖에 안되는 현 中東사태를 아직도 취약하고 민감한 상황이라고 말하고 관련국들에 대해 최대한의 자제력을 발휘해줄것을 촉구했다。

한편 백악관도 이날 … 대변인을 통해 이번 사건에 깊은 유감의 뜻을 나타내면서 美國은 다시는 이나란 사태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는 … 성명내용을 재확인했다。



「南阿共」軍、앙골라侵攻

戰鬪機·野砲지원 6개마을 占領…北進中

【파리30日AFP=聯合】 남아공화국군이 인접 앙골라영토를 침공, 쿠네네省내 6개 마을을 점령하고 룸벨바에 사령부를 설치했다고 파리주재 앙골라대사관이 29일밤 발표했다。

대사관은 이날 성명을통해 남아공화국보병 1개대대가 현재 주벨라이음을 점령키위해 북진중이라고 밝혔다。

이 성명은 또 다미비아로부터 앙골라로 침공해들어온 남아공화국군은 보병1개여단、용병·남아공화국군으로 혼성된 2개대대、1개보병기계화대대등으로 구성되어있으며、이들은 장거리 야포와 … 임팔라MK2 제트機와 알루에트 3 헬리콥터등 전투기들의 지원을 받고있다고 덧붙였다。

中共軍 創設54周年 / 10年만에 軍隊行進

【北京29日AFP=聯合】 중공은 北京에서 오는8월1일의 중공군창설 54주년을 기념하기위한 군대행진을 벌였다。

北京晩報는 지난24일 서유럽순방에서 귀국한 인민해방군 총참모장 楊得志가 이날 약1천2백명의 장병들이 北京서남부에 있는 한 연병장에서 열병하는것을 사열했다고 보도했다。

美、豫算3백60억 減縮
레이건의 政治的 승리
82년예산 上下兩院서 승인

【워싱턴29日UPI=聯合】 美하원은 29일 레이건행정부의 3개년 25%감세안을 찬성2백38 반대1백95로 승인함으로써 레이건 대통령에게 취임이후 최대의 정치적 승리를 안겨줬다。

…

메아리

영국의 제42대 국왕이 될 찰즈 황태자와 다이애너·스펜서 양 결혼식광경이 우리나라에도 위성중계로 생방송되어 동시에 볼수가 있었다。

…

王室의 뿌리

…

사드르、女子로 僞裝탈출

軍用機로 脫出…승무원4명 歸國요청

파리의 딸집에도착

【파리29日AFP=聯合】 아불하산·바니·사드르前이란대통령을 프랑스로 실고간 이란군용 수송기승무원4명은 프랑스로의 비행을 강요받았다고 밝혔다고 파리의 정통한 소식통이 29일 …

사드르 인도要求 "팔레비 亡命조종"

【테헤란29日AP=聯合】 …

이란에 引渡안한다 / 세이송 佛外相거부

【파리29日AFP=聯合】 클로드·세이송 프랑스외상은 29일 아불하산·바니·사드르前대통령을 …

눈썹뽑고수염깍아 / 이란官房자과밝혀

【베이루트29日AP=聯合】 …

훈련飛行계획 事前에 제출 脫出준비

【카이로29日AP=聯合】 …

空軍機 1臺被拉

【테헤란29日AP=聯合】 …

韓民族의 전통·고유성을 풍자

中共만화가 阿韋 「延邊韓民族 自治州」스케치

중공의 중진만화가 阿韋가 吉林省의 「延邊韓人(朝鮮族)」自治州」를보고 스케치한여행 풍자한것으로 …

人民日報、文革때 없앤「시사만화」부활

…

◇언제어느때나 예의가 바르다 ◇머리에 이는 기술

國際焦點

◇公開키스 찰즈·다이애너… 【런던29日AP電送=聯合】

◇축하객에 답례하는 찰즈 … 【런던29日AP電送=聯合】

◇結婚式 끝내고 워털루驛으로 … 【런던29日AP電送=聯合】

英國病 달랠 새희망의 象徵

찰즈夫婦、브로드랜드 古邸宅서 첫날밤

英言論、애국적축하 共產系만 거센非難

【런던29日AP=聯合】 영국의 신문들은 29일 찰즈황태자와 다이애너·스펜서양의 결혼식을 애국적인 열정속에서 축하했다。

영국신문들은 청소년도 시 폭동의 재연、끝나지않는 北아일랜드사태로 고조되는 실업사태로 영국사회가 시달리는 가운데 열리는 황태자결혼식을 새로운 희망의 상징으로 묘사했다。

이에 반해 共產系의 모닝·스타紙는 유일하게 신랄한 비판을 퍼부으면서 『들뜬 축제무드는 곧 사라질 것이고 …』 비난했다。

엘女王 夫妻도 첫날밤 지낸곳

○…29일 부부가된 찰즈황태자와 다이애너비는 영국의 엘리자베스여왕부처가 지난 47년 결혼초야를 지낸 故마운트배튼경소유 브로드랜드에서 첫날밤을 보냈다。

런던서남쪽 1백40㎞지점에 있는 이 저택은 지난 47년11월20일 엘리자베스여왕과 부군 필립공이 신혼여행의 첫날밤을 지낸곳으로 가장 가까운 공로로부터도 1·6㎞이상 떨어져있어 …

世界축복속 新婚 단꿈즐겨

3일간滯留 지브롤터 旅行

5시간만에 出現 橫造웨딩드레스

現代·古風조화 아름다운 모습

經費 2백만弗所要 保安費 60만弗으뜸

序列 3위로 浮上

서약、傳統的문구

"稅金도 안내며 結婚式만 사치"

反王政派선 외면

蘇、暴動만 放映

…

이대환 不動產

주택과 사업체에 관한
일체의 문의나 거래는·

REAL ESTATE BROKER
MORTGAGE BROKER 이 대 환

금주의 새 리스팅

도나스 샆
주매상 $12,000, 렌트 $1200, 리스4년+5년
주매상 $7500, 렌트 $2800, 리스21년 Asking $279,000,
다운페이멘트 $160,000

버라이어티
주매상 $7,200, 렌트 $1120, 리스3년+5년(3베드룸포 함)
주매상 $5,500, 렌트 $1,300, 리스3년+5년
주매상 $12,000, 렌트 $1200, 리스4년+5년

DRIVE IN햄버거 SHOP(3주전에 Open)
주매상 $8000, 렌트 $3000, 리스10년, Asking $269,000
다운페이멘트 $80,000(스토아 오픈시간 10시~10시)

일요일 쉬는 백화점안에 있는 Fish & Chip
주매상 $7,000, 리스6년반, 렌트 $2350+Common경비
오픈시간 오전10시~오후9시, 토요일10시~6시,
일요일·공휴일은 문닫음, Asking $250,000
다운페이멘트 $120,000

세일즈맨 신 영 하 R) 423-3114

주소 : 609 BLOOR ST. W.
B) 535-1251, R) 536-4250

NORTH YORK AUTO BODY
20년의 경력을 자랑하는
■사고시 보험관계 일체처리

★24시간 토잉써비스★630-0000
어느때를 막론하고 토잉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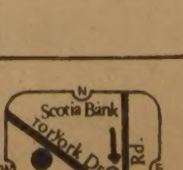
- 사고차량 완전수리
- 페인팅(oven baked finish)
- 수리중 차량대여
- 각종차량 일체취급

Towing 완전설비된 Licensed Oven Baked Finish

교포우대

(B) 749-0555
(R) 881-4053

215 TORYORK DR. 송 대 현
1 block North of Finch
West of Weston Road.



각종 認許可업무 대폭改善

動資部 對民 편의위해 年內작업

연탄販賣業 洞에 신고만
電氣기술자 免許制 폐지

동자부는 對民편의를 위해 각종 인허가업무를 年內로 개선시키기로 했다. 동자부가 마련한 인허가업무 개선방안에 따르면 연탄판매업은 市道에 등록케 되어있으나 관할面 또는 洞사무소에 신고만으로, 윤활유정제업과 석탄가공업 시설 변경은 동자부 허가에서 신고로, 전기기술자는 면허와 함께 동자부로부터 면허를 얻어야 취업할수 있게 되어있으나 면허제를 폐지키로 했다.

선박 海外서 給油도 자유화

또한 에너지관리사와 고압가스안전관리자 채용기준도 사업체의 규모에 따라 다단계로 되어있으나 이를 단축시키고 채용인원도 줄이는등 기준을 완화시키기로 했다.

전기공급제도 현재 계약기간 1년을 장기화하고 納期日이 지난후 15일이내 전기요금을 납부하지않으면 斷電, 斷電조치를 받고도 10일이내에 요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계약이 파기되어있는데 이러한 조건부기한을 연장시킬 계획이다.

동자부는 현재 허가제로되어있는 열사용기자재 제조업도 안전밸브등 상당수의 품종을 신고제로 바꾸고 선박이 해외에서 給油받을때도 동자부의 추천을받도록 되어있는 해외방카링제도도 자유화시킬 방침이다.

◇깨끗하고 신뢰받는 稅政구현을 다짐하는 세무공무원 결의대회가 30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다.

각稅務署에 人事委신설
신뢰받는 세무公務員 決議대회

깨끗하고 신뢰받는 稅政구현을 위한 세무공무원결의대회가 30일상오8시 서울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다. 在京세무공무원 4천여명이 참석한 이날대회에서 金壽鶴국세청장은 稅政非理를 근원적으로 제거하기위해 세무서단위로 인사위원회를 신설, 분수에넘게 호화생활하는사람, 납세자에게 금품을 요구하는사람, 물의를 빚거나 지탄의 대상이되고 있는사람, 인사청탁등 淨化에 역행하는사람등을 철저히 가려내 도태시킬방침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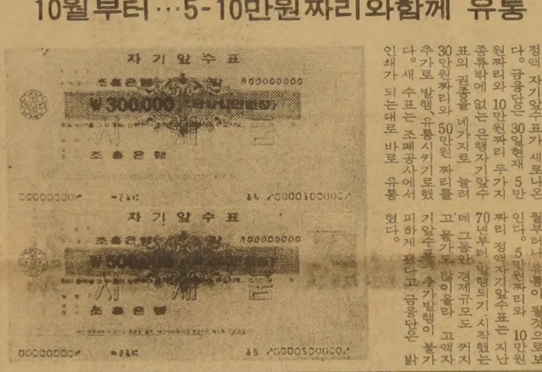
金청장은 그동안 자체정화를 통해 비위 세무공무원 41명을면직, 30명을 좌천시켰으며 비위관련자및 상위감독자에 대해서도 파면12명, 직위해제6명, 경고35명등 인사조치를 단행한바있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특별감찰활동을 강화, 비위관련자를 엄단하고 상급자와 해당官署長에대해 연대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韓·中經濟각료會談
商品개발 相互협력

제15차韓·中경제각료회담이 30일상오 경제기획원 회의실에서 열렸다.

한국측 수석대표인 申秉鉉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이날 개회사를통해 環太平洋지역국가간의 결속과 경제협력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현싯점에서 韓·中양국간의 경제협력증진은 그 어느때보다도 절실히 요청된다고 지적, 특히 최근 국제경제사회에서 고조되고있는 新生工業國家들에대한 特惠關稅배제, 原油를 비롯 팽배해지고있는 각국 資源내셔널리즘에 공동대처하고 지금까지의 低賃에서 탈피, 새로운 상품의연구개발과 質的고급화를통해 대외경쟁의 비교우위를 확보하는데 협력해나가자고 제의했다.

30만원·50만원짜리 자기앞手票가 나온다
10월부터…5-10만원짜리와함께 유통



30만원짜리와 50만원짜리 정액 자기앞수표가 새로나온다.

금융단은 30일현재 5만원짜리와 10만원짜리 두가지 종류밖에 없는 은행자기앞수표의 권종을 네가지로 늘려 30만원짜리와 50만원 짜리를 추가로 발행,유통시키기로했다. 새 수표는 조폐공사에서 인쇄가 되는대로 바로 유통 시킬계획인데 10월부터나 유통이 될것으로 보인다.

5만원짜리와 10만원짜리 정액자기앞수표는 지난 70년부터 발행되기 시작했는데 그동안 경제규모도 커지고 물가도 많이올라 고액자기앞수표의 추가발행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금융단은 밝혔다.

家計性 少額예금 教育稅부과 안해
財務部

정부는 서민들이 목돈마련을 위해 많이 들고있는 우대 특별정기가계예금등 5가지 예금의이자소득에대해서는 교육세를부과하지않기로했다.

30일 재무부에 따르면 신설교육세는 예금이자소득에 대해 일률적으로 5%의 세금을 부과할 계획이었으나 서민들의 가계보호와 저축장려책을 지속하기위해 가계성소액예금에 대해서는 교육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키로했다.

재무부는 이에따라 우대 특별정기가계예금 (2백만원짜리), 농가목돈저축예금, 근로자재산형성저축예금, 납세예금등의 이자소득은 교육세를 물지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輸入쇠고기 收益, 소增殖지원
高農水産 智異山등에 20개肉牛단지 年內조성

정부는 쇠고기의 安定的공급을위해 수입쇠고기판매수익금 1천7백여억원을 소增殖사업에 투자, 80년말 1백60만頭의 소를 86년까지 2백만頭수준으로 늘리기로했다.

高建농수산부장관은 30일하오 충남牙山郡新昌面 新昌單協에서 열린 제2차農政協議會에서 정부의 이같은 소증식계획을 밝히고 농민대표들로 구성된 委員들과 협의를 가졌다.

농수산부는 소증식 사업의 1단계로 올해안에 산간지역인 智異山과 太白山지역의 20개소에 肉牛시범번식 단지를 조성키로 했다.

또 암송아지의 사육을 농가부업으로 장려하기위해 농가당 1~3頭범위안에서 현재의마리당 융자금20만원을 내년부터 30만원으로늘려연간 5만頭를 증식키로하는 한편 韓牛와 비슷한 사료공급에도 성장속도가빨라 경제성이 높은交雜牛를 올해 5만頭에서 내년까지 8만頭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했다.

농수산부는 智異山·太白山지역 번식단지조성을 위해 이미 전북과 강원도에 각각 지원, 1단지별 5억원의 씨소구입비로 마리當 40만원, 축사건축비 15만원, 사료포 조성비 마리當 5만원등 1마리當 50만원을 지원키로했는데 내년에는 나머지 道에 대해서도 단지조성비를 지원하기로했다.

우리나라의 韓牛사육頭數는 지난74년 1백77만8천마리를 최고로 매년 격감추세를 나타내 80년말에는 1백38만5천頭로 떨어져 농수산부는 올해안에 1백44만5천頭로 늘릴 계획이다.

旅行목적 따라 9가지로 區分
訪問초청은 1년이내로制限
發給後1년이상 국내체재땐效力상실

새旅券法 시행規則

외무부가 확정한 旅券法 시행規則은 정부의 과감한 海外旅行자유화방침에 따라 8월1일부터 실시되는 새旅券法과 同시행령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새 旅券法 施行規則 주요내용

項目	내 용
일반여권	여행목적에 따라 商用, 文化, 同居, 訪問, 留學, 취업, 기술훈련, 거주, 관광목적으로 區分
초청장의 공증과 확인	▲초청장은 초청자의 거주지국 공증인의 공증을 받거나 거주지관할 공관의 확인 필요▲외국정부나 국제기구, 외국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초청장은 공증이나 확인면제▲초청장은 공증또는 확인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것이어야 함
친지방문목적여권	친지방문목적의 일반여권은 국외에거주하고있는친지 (외국인포함) 로부터 항공료와 체재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초청을받은경우에 한해 단수여권으로 발급 (82년 7월 1일시행)
기술훈련여권	기술훈련여권을 발급받고자 신청할때는 초청장과 연수계약서, 기타여행 적격자임을 인정할수있는 서류를 제출해야함
商用여권	영업 활동에 종사하는 개인이나 상사의 대표자 및 그소속원이면 누구나 발급받을수있음
문화여권발급대상	▲국제회의 참석또는 국제기구 근무자 ▲국제경기참석또는 스포츠교류의경우 ▲국외에서 취재,공연또는 영화촬영하는 경우 ▲문화목적의연수▲선교사업 ▲국내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치료를위해 출국하는경우 ▲단기학술연구,학생의 단기국외 연수나시찰 ▲기타국제문화교류 희망자
同居목적여권	1년이상 長期국외체재를 목적으로출국하거나 이미 출국한자가 동거를 위해 2촌이내의친족을 동반,또는 초청하는경우에 발급되나 直系卑屬의 배우자와 미혼인직계 卑屬을 제외한 친족을 동반 또는 초청할때 생활능력이없는자로서 국내에 부양할자가 없는경우와 인도적이유가 있다고 인정될경우도 포함
近親방문여권	6개월이상 계속 국외에 거주한 사람의배우자와 3촌이내의 혈족및 인척을 방문케할 목적으로 초청하는 경우에 가능함

【河長春기자】

깨끗한 政治
權寧大 〈한국에너지硏 고문〉

十字春秋

北韓뉴스

라지이大統領에 金日成당선祝電

韓國對外開放 정책 北傀 왜곡선전血眼

經濟短信

▲商議 鄭회장 精文硏이사장에 추대=鄭壽昌 商議회장은 30일 精神文化硏究院이사회에서 제3대 이사장으로 추대됐다.

▲韓國火藥그룹會長에 故 金회장장남=한국화약그룹은 故金鍾喜회장의 장남인 金昇淵씨(사진)를 선임. 당년 31세인 신임 金회장은 미 멘로大에서 국제정치학을, 드폴大에서 경영학(석사)을 전공한뒤 귀국, 4년동안 그룹내에서 경영수업을 해왔다.

▲貿協창립35주기념식=貿協은 31일상오 창립35주년기념식을갖고 李載完씨등 유공자및 장기근속자 창립기념 상을 수여, 24명을표창.

▲大韓船洲, 大型撒物船 도입=大韓船洲(대표尹錫祖)는 浦鐵用 원료탄의 적기안정수송을 위해 11만톤급 大型撒物船 웨스트오리호의 浦項처녀입항을 축하하는 船上紀念行事를 30일 大韓船洲임직원과 浦項製鐵사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했다.

◆韓國가스 龜尾공장준공=韓國가스는 29일 합작선인 美에어프로덕스社 에드워드·D·본회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龜尾제2공장(日産22만ℓ) 준공식을 갖고 30일부터 가동.

말聯교량 공사따내 現代建設

【쿠알라룸푸르29日UPI=聯合】 한국의 현대건설이 세계에서 세번째로 긴 말레이지아 북부의 페낭섬-본토간교량신축공사 입찰경쟁에서 프랑스·이탈리아·네덜란드등의 세계적인大회사들을 물리치고 공사를수주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레이지아의 한 신문이 29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현대건설이 총 8.4㎞길이의 페낭섬-본토간 교량공사입찰에서 2억3천43만달러로 낙찰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면서 이에대한 말레이지아정부의 공식발표는 오는8월중에 있을것이라고 덧붙였다.

페낭교는 미 샌프란시스코의 金門橋를 본떠 현수교로 건설될 예정이다.

製氷업체들만 好況
需要폭발 物量달려

냉장고의 급속한 보급으로 인해 지난수년동안 고전을면치못하던 製氷업체들이 올들어 무더운 날씨덕분에 모처럼 호황을 누리고있다.

30일 관련상가에따르면 연일 30도를 계속 웃도는 무더운 날씨에서 본격적인 성수기를맞은 얼음값이 폭발적인 수요를 대지못해 물량공급이 달리면서 지난달보다 최고 60%까지 껑충뛰었다.

모든 좋이 있어 生 〈162〉

趙善作 作 / 禹慶熙 畵

그림자 놀이 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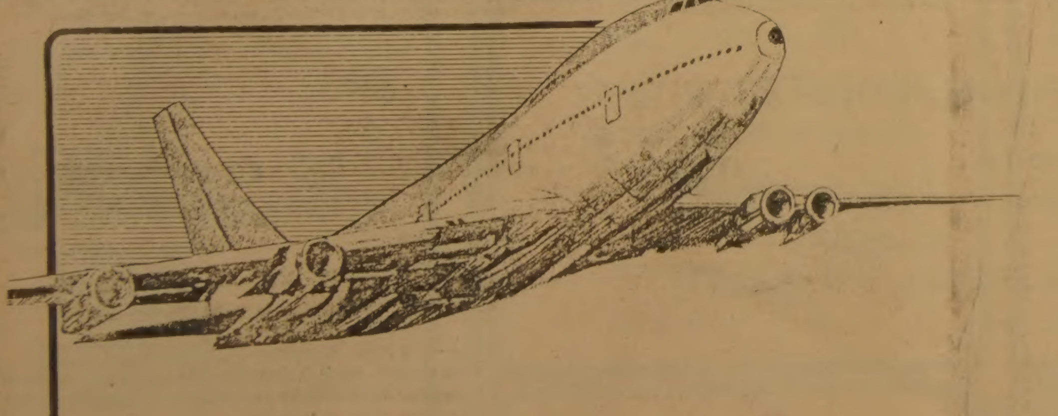
한국기원

영업시간 : 1시~11시
653A BLOOR ST. W.
☎ 533-0168
부설 : 고려전자칩

여름철 SEAT SALE !

서울왕복 $1,180
KAL뉴욕경유 : 자유귀환

●방문초청 특별요금(초청장 작성)
●저렴한 국내선 특별요금(SKYBUS · SKY SAVER · · CHARTER)
●관광휴양
●월부 · 크레딧 카드 환영



IATA
KAL

NEW WORLD TRAVEL
신세계여행사
712 BLOOR ST. WEST, TORONTO
김 창 범
Tel. (416) 536-2155/6
(RES) 492-7525

詩集「나비의 꿈」펴낸 朴異汶교수

인터뷰

老莊思想과 佛敎에 심취

"西洋서 東洋의 마음으로"

어지러운 言語·知識에 食傷 哲學테마로 冥想 세계 접근

詩人이며 철학교수인 朴異汶씨(50)가 지금까지 밟아온 精神의 所産을 한 자리에 모은 詩集「나비의 꿈」을 꾸며냈다. 「나비의 꿈」은 莊子와 佛敎에 의지해서 觀照해온 主題를 다룬 詩作品을 묶어 놓아, 철학을 강의하는 詩人다운 특징이 잘 나타나있다.

「내꿈속의나비는/꿈/나비속의꿈에서/나를보고/나는나비속의그림자/나비의/꿈속의 나의/그림자/…꿈으로 만들어진/현실/현실 껍데기속의/꿈의 꿈」(「내 꿈속의 나비는」)의 詩는 人生은 한 바탕의 꿈과 같이 實體가 잡히지않는 것이라는, 나비가된 莊子의 에피소드를 빌어 쓰고있다.

『老莊思想은 우리 存在를 전체적으로, 宇宙的으로 보는데 가장 적절한 철학이라고 생각해요. 또한 直觀과 感性으로 우리 存在의 비밀을 접근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분석과 이론을 중시하는 서양철학보다 더욱신비롭고 아름다운데가 있지요』

朴異汶씨는 老莊사상과 불교에 도달하기까지 서양철학을 오랫동안 공부했다. 처음 학문을 시작할땐 서양적인것으로 출발, 서울大 불문학과 대학원에서 말라르메등의 프랑스 문학에 젖었었다. 소르본대학에 유학해서 불문학박사학위를 받은데이어, 美國加州대학에서는 논문「메를로·퐁티에 있어서의 存在와 表現」으로 철학박사학위를 받았다. 「現象學과 分析哲學」「哲學이란 무엇인가」「詩와 科學」등의 철학저서를 내어 서양 철학에대한 그의 깊은 공부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수년전부터 觀照와 直觀으로 인생의비밀을 풀려는 老子와 莊子에 눈길을 돌려 지난해에 「老莊思想」을 두툼한책으로 써냈다.

『서양철학은 理論的이어서 너무나 말이 많고, 知識이많지않나 싶어요. 그러나 老子와 莊子는 별로 말이없이 智慧를 내보인다. 佛敎를 소재로 한…』

◇詩集「나비의꿈」을 꾸민 朴異汶씨。그는『이 詩集으로 내가 도달할수 있었던 하나의 世界에 이르렀다』고 말한다。

「하늘이 맑고/江물이 맑은 것은/그것들의 있음에/아무 이유가 없기때문이다/…」(「禪」)와 같은 詩作品은 이 세상의 一切를 알게 된 者의 평화를 이해하기쉬운 비유를 들어 묘사한다.

이 詩集속에는 79년부터 2년여동안 미국 보스턴 시먼즈대학에서 철학교수로 재직하며 얻은 詩들도 들어있다.

「푸른 주말/파란 잔디/…」

언어와 知識을 다 떨어버린 老莊사상을 소박한 技法으로 나타내 보인다.

詩作品들도 詩集「나비의 꿈」에서 중요한 무게를 차지한다. 「禪詩」,「涅槃」은 一切智를 얻은 者의 평화로움을 추구하며 사는 재로 삼는다.

「석조불상/돌인데/살아/서/코/귀/깨어진 손/소라/…」

「그같은 詩는 화이트(白人)라는 집단속에 끼여사는 한 동양인이 느끼는 異質的 소재로 한다.

朴異汶씨는 현재 梨大에서 강의를 맡고 있으며, 내년 7월에 다시 미국의 대학으로 떠난다.

【馬性淑기자】

兒童문학가 오늘의 位置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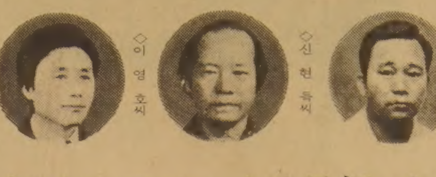
○○○○○ 韓國兒童文學家協會, 韓國現代兒童文學家協會, 韓國兒童文學會등 3개아동문학단체가 8월을 맞으며 동시에 세미나를 마련, 아동문학과 아동문학가의 현재 位相과 문제점을 토의한다. 3개아동문학단체의 이 여름 세미나는 아동문학 창작붐이 높아나고 아동문학가들의 활동이 활발해 지고 있는 현상을 뒷받침하는 문학 모임이다. ○○○○○

教師겸직 긍정·부정見解 갈려

창작열높고 작품水準 크게향상

幼兒교육에 感性측면소홀 批判

3개團體서 동시에 세미나열어



◇신현득씨 ◇이영호씨 ◇석용원씨

韓國兒童文學家協會(회장朴京鍾)는 8월1일~2일 서울서초국민학교에서 「한국아동문학, 그現實의 再照明」을 주제로 모임을 갖는다. 이 모임에서는 「아동문학가, 그는 누구인가」(李榮浩), 「아동문학교육, 무엇이 문제인가」(金泰村), 「어린이 독서생활, 어디로 가고있는가」(沈明鎬), 「아동도서출판, 이대로 둔다면」(劉庚煥)등 4개강연과 종합토의가 마련된다.

李榮浩씨가 맡은 「아동문학가, 그는 누구인가」는 우리나라 아동문학가들의 實相과 意識 내용을 드러내 흥미를 끈다. 李榮浩씨가 조사한 우리나라 아동문학가의 수는 1백50여명, 이 가운데 1백21명이 국민학교및 중등교사로 재직하고있다. 아동문학가의 반수 이상이 교사로 재직하고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견해와 부정적인 견해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긍정적인 견해쪽은 교사들이 아동들과 생활하기 때문에 독자인 아동의 심리를 잘 알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부정적인 견해는 그들이 교육학이외의 다른 학문을 폭넓게 섭렵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으며, 아동문학을 자신의 직업으로 삼고 열정을 기울이는 힘이 약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 부정적인 견해는 아동문학가가 된 동기에 대한 조사 결과에 비추어 볼때 한결 더 어린이와 생활하다 보니 우연히 하게 됐다고 대답한 수가 52명이나 된다. 그러나 아동문학이 좋아서, 가장 보람있는 일이어서, 어린이를 위한다는 신념에서 아동문학을 하게됐다는 아동문학가가 45%를 차지하고있어 아동문학에 대한 열정도 보여주고 있다. 아동문학가가된데 대한 만족도도 비교적 높은편이어서 아동문학가가 된데대해 극히 만족스럽다고 대답한수가 15·8%에 이르는 29명, 대체로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수가 43·2%에 이르는 79명이다.

1년동안의 작품 창작편수는 평균 5편~13편으로, 아동문학가들의 창작열은 어느때 보다도 높은 현실을 보여준다. 문학단체에 대한 반응은 「하나면 좋다」고 대답한 아동문학가가 1백10명으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아예없었으면 좋겠다」고 대답한 수가 11명이다. 아예 없었으면 좋겠다고 대답한 것은 지금까지 있어온 문학단체끼리의 파쟁과 반목에 대한 분노와 증오심의 표시로 해석된다. 李榮浩씨는 「3개 아동문학단체도 적당한 계기를 마련해서 하나로 통합, 전체 아동문학가들의 이익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아동문학회(회장金英一)는 8일~10일 忠南…

한국현대아동문학가협회(회장 金聖道)는 1일~2일 江原道洪川邑 수타사에서 「아동문학과 유아교육의 교류」를 주제로 창립 28주년 기념 세미나를 연다.

이 세미나에는 주제강연 「아동문학교육의 문젯점」(石庸源)과 초청강연「유아심리와 유아를 위한 문학」(金在恩), 발제강연 「어머니와 유아문학」(韓相壽), 「유아를 위한 문학의 성격과 한국창작」(金永子)등이 발표된다. 소설가 金東里씨, 成耆兆씨등이 특별참여자로 참석해서 종합토론에 가담하기도 한다.

石庸源씨는 주제 강연에서 『우리나라의 아동문학과 유아교육의 관계는 거의 황폐한 상태』라고 문젯점을 지적하고,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유아교육에는 문학교육이 거의 황폐한채로 버려져 있다』고 비판한다. 石庸源씨에 의하면 우리나라 유치원 교사는 총 3천7백여명에 이르나, 이들이 가르치는 童話나 童詩교육은 권선징악적인 도덕교육과 言語배우기 두가지에만 치우치고 있다.

이 때문에 유아교육에서 문학교육은 道義교육의 수단으로 떨어지고 있으며, 문학의 美的 가치와 특유의 感性교육을 소홀히하고 있다. 그는『또한 유아교육에서 사람들은 유아문학교육에 대해 비전을 제시해 주지 않고, 손에 잡히는 대로 외국동화 번역물을 쉽게 택해 읽히고 가르치고 있다』고 말하고, 『그것은 유아교사들의 문학교육에 대한 인식부족 때문』으로 설명한다. 그리고 『유아교육자들이 아동문학 재교육을 받을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문학교육을 충분히 이해할수 있게 하고, 아동들에게 문학을 지도할수 있을 만큼의 창작·改作의 능력까지도 가질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모임에는 「창작동화와 독자」(曺大鉉), 「어린이와 歷史를 意識하자」(申鉉得), 「동화와 독자」(任敎淳)등의 강연이 발표된다. 이 모임에서는 申鉉得씨가 『우리나라 문학사와 문단사는 아동문학에 대해 너무나 무관심해왔다』고 비판, 문젯점을 던지고 있다.

그는 『우리나라 문학만 보면 아동문학이 이룩한 업적은 외국에서 이론을 수입하지 않고 우리나라것에 뿌리를 뻗은 순수한 우리의 이론으로 발전해왔다』고 말하고, 『그런데도 우리文學史의 어느 구석에도 모퉁이 한자리 없다』고 비판한다.

또한 『아동문학가는 文壇의 위치에서도 2년에 한번씩 文協의 투표행사에 참가하는 이외에 아무런 힘도 영향력도 가지지 못하고있다』고 말한다.

이같은 위치속에서도 아동문학가들의 창작열은 해마다 높아가고 작품의 수준도 성장하고있는것은 아동이라는 독자층이 두꺼워지고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申씨는 『아동문학은 아동이라는 특수계층을 독자로 하고 있으므로, 아동문학가들은 文壇에서의 위치에는 아랑곳없이 아동이 존재하는 한 그 있을자리에 있다는 민음과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써야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文學史를 쓰는 評者들도 이제부터는 文學史의 한章속에 아동문학을 넣어 주어야한다』고 주장한다.

韓國의 自己發見

한국정신문화연구원

分斷시대의 主體意識 고찰

우리는 分斷시대에 살고있다. 분단시대엔 거기에 알맞는 정신문화가 있게마련이며 이같은 정신문화의 형성을위해선 분단시대와 역사에대한 주체의식의 형성이 선행되어야한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은 이같은 의식화형성의 자발적생성을위해 우리나라 국민들이 광범위하게 읽을수있는 이념적인 교양서 「韓國의 自己發見」을 내놓았다.

「韓國의 自己發見」은 정신문화연구원 연구2부장 金炯孝박사가 중심이되어 연구원의 관계학자들과 사계전문학자등 24명이 참가, 지난2월부터 지금까지 7차례에걸친 토의와 협의를 거쳐 5개의 파트별로 나누어 집필됐다.

제1부「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인가」에서는 우리민족이 겪어온 시련, 특히 19세기적 시련을 회고하고 우리문화의 본질, 경제와 정치, 그리고 사회를 고찰하고 있다.

제2부 「공산주의를 어떻게 볼것인가」는 이론으로서 본 공산주의, 체제로서본 공산주의, 운동으로서 본 공산주의를 논하고 제3세계의 발전이론에대한 재검토와 비판적분위기가 고조되면서 형성, 발전, 특히 60년대를 전후하여 라틴·아메리카 학자들에의해 주도된이론, 즉 제3세계의 低發展이 제3세계가 가지고있는 본원적·본래의 성격이 아니라 자본주의적 국제체제에서 중심국에 의해 인위적으로 조성된 상태라는 것이다. 이데올로기와 從屬이론(Dependency Theory)을 분석, 설명하고있다.

從屬이론은 서유럽중심적 처인 상태가 아니라 자본주의적 국제체제에서 중심국에 의해 인위적으로 조성된 상태라는 것이다.

「韓國의 自己發見」은 從屬이론을 우리사회에 적용시킴으로써 일어나는 무리와 문제점을 지적하고있다.

제3부 「김일성의 공산주의는 존속될수 있는가」에서는 김일성주의와 그 허구성, 동적자세, 민주주의 파괴에 북한이 주장하는 정체를 비판하고 고려연방제안이 주장하는 것이다.

「韓國의 自己發見」의 특징은 우리국민이 분단시대에 살면서 한국을 어떻게 생각해야 한것인가를 구명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나온 이념적인 서적과 성격을 달리하고있다.

또 김일성이 자신의 韓格化를 위해 해방후 지금까지 자행된 숙청의 역사를파헤쳤다.

제4부 「남북한의 비교」는 정치체제, 경제체제, 사회·문화, 교육의 비교, 군사력의 비교로 나누어 풀이했다.

제5부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과 통일운동」에서는 정통성의 수호를 주장하면서 평화통일을 위한 우리의 능동적인 통일노력을 제시하고 있다.

公共도서관서 貸出때마다 作家에「작품대출료」支拂

英國, 基金4백만弗 마련

海外文化

英國內에 거주하고 있는 소속국가의 作家로 英國에 거주하고 있는 作家들은 그들이 쓴 作品이 英國內 公共圖書館에서 대출될때마다 1년에 권당 5백파운드(美貨1천달러 상당)의 범위내에서 반페니(美貨1센트 상당)씩 받을수 있게됐다.

英國에는 고도로 발달된 서관에서 대출될때마다 1년에 권당 최고 5백파운드(1천달러)까지 매년 반페니(美貨1센트상당)씩 받게될것이라고밝혔다.

英國의 公共圖書館은 地方당국과 중앙정부의 기금으로 운영되고있는데 한개의 공공도서관에서 10권까지 대출받을수있다.

몇안되는 베스트셀러 物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비교과서는 도서관조직에의해 팔리고있으나 지금까지 著作者들은 도서관을 통해 책이 얼마나팔리든간에 추가지불을 받지못해온 터였다.

샤논장관은 1권당 연간 5백파운드의 상한선을 정한것은 별도의돈이 그렇게 필요하지않는 베스트셀러作家들이 상업적으론 성공적이 되지못하더라도 그만한 값어치가있는 책을쓰는 作家들에게 돌아갈돈을 축내지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말했다.

이 기금의 혜택을받게되는 作家는 英國內에 거주하는 英國作家와 유럽공동시장국가의 작가로 英國내에 거주하는 외국출신작가들인데 세금을피해 외국에서 살고있는英國作家는 여기서 제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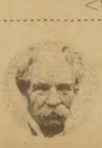
6천개의 公共圖書館이 있어 作家들은 30년전부터 그들의 作品이 圖書館에서 대출될때마다 일정액의 댓가를 지출해주도록 투쟁해왔는데 마거리트·대처首相의 府는 作家들의 이같은 요구에 따라 연간 2백만파운드(美貨 4백만달러)의 기금을 창설, 공공도서관의 대출때마다 돈을지출하기로 한것.

상세한 사항은 아직 議會를 통과해야하지만 藝術省의 폴·샤논장관은 詩人·劇作家를 포함한 모든作家는 그들의작품이 공공도서 …

【런던UPI=聯】

文豪의 名言

슈바이처 <1875~1965>



프랑스의 프로테스탄트 神學者, 哲學者, 音樂家, 醫師。赤道아프리카 랑바레네의 醫療傳道者로 黑人救濟에진력, 1952년 노벨平和賞수상。바하硏究者로, 파이프오르간연주가, 괴테學者로도유명。

生命의 神秘엔 畏敬心을 禁할수 없다

만일 人間이 生命의 神秘, 그리고 世界에 가득찬 生命과 自身과의 神秘로운 관계를 생각한다면 틀림없이 自身의 生命과 자기領域의 모든 生命에 生의 畏敬心을 갖게 될것이다。

× × ×

一流의 音樂家, 神學者, 大學敎授로서의 위치를 헌신짝처럼 팽개친채, 일개 醫師로 赤道아프리카의 原始林속에 들어가 土人救濟사업에 종사, 原始林의 聖者, 世紀의 偉人이라 불리는 슈바이처(Albert Schweitzer)는 독일과 프랑스의 兩文化의 交流地인(당시는 獨領) 알자스에서 牧師의 아들로 났다。

5세때부터 피아노와 파이프오르간을배워 제일급의파이프오르간연주자로, 또한 바하 연주의 1인자로 명성을 떨친다。

그러나 그는 이같은 좋은 환경속에서도 늘 어떤자의 소리를 듣고 언젠가는 이 幸福한 생활을 벗어던지고 일신을 남을 위해 바치려는 욕구를 가졌었다。

국민학교때 학우의 비참한 생활을 보고 자신이 혜택받은 환경에있음을 알고, 그러기에 더한층 사회에 보답해야 한것을 결심한다。

그것이 다름아닌 30세때까지 자기가 좋아하는 학문과 예술에 살며, 그후는 직접으로 人間에의 奉仕에 몸바치리라는 결심이다。

1904년 어느가을날 우연히 赤道아프리카 지방의 土人참상에 대한 논문을읽고는 天啓에 접한것처럼 그곳으로가, 土人의 친구가 될것을 결의했다。그는 대학에서 강의하는 한편 醫學部학생으로 6년간에걸쳐 의학의 모든분야를 연구, 1913년 랑바레네에건너가, 독력으로 土人상대의 醫療사업을 시작했다。비참한 土人들의 생활, 赤道直下의 原始林의 상황, 日射病과 말라리아와 알콜中毒, 그리고 온갖 疾病들。

土人의 無知와 白人들의 편견과 싸우면서 겨우 병원의 기초가 굳혀질 무렵 1次大戰이 발발, 그는 獨領의 사람이라고 불란서 半死半生의 상태로 유럽에 송환됐다。

그간 그의 마음속엔 現代文明에의 근본적 의혹이 점차 커져, 마침내 이 비뚤어진 現代文化를 근본적으로 비판, 올바른 文化의 기초를 열기 위한 一代의 大著「文化哲學」의 집필에 들어갔다。전쟁이 끝나자 다시 그는 재차 아프리카로 건너가 차츰 병원도 확장, 의료사업을 계속, 드디어 세계적 명성을 얻기에 이르러 1952년, 노벨平和賞을 받는다。

『나는 世界의 肯定—나의 주변에서 뜻을 찾고 다른사람의 삶을 위해 자신을 희생시킴으로써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인용은「나의 生涯와 思想」에서。

文化短信

「서울言語學 학술회의」

14개國 4백90명 참석

세계14개국 4백90명의 언어학자들이 참가한 「서울언어학 학술회의」가 28일 서울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개막, 오는 8월3일까지 계속된다.

한국언어학회(회장 李翊燮)가 창립5주년기념사업으로 주최한 이 국제학술회의에는 認識意味論의 1인자로 꼽히는 조지·레이코프(버클리大), 生成意味論의 권위 존·로스(MIT大), 格文法의 창시자 찰즈·필모아(버클리大), 音韻論의大家 폴·키파스키교수(MIT大)등이 초대됐다.

이밖에 김진우(일리노이大) 김영기(파리제8大) 박태영(하와이大) 손호민(ㅡ)등 윤회원교수(파리 제7大)등 외국에서 활약하고있는 한국인학자가 대거 참석, 한국 문과학의 성장을 알리는 기회로 기대되고있다.

이번학술회의에서 대회둘째날인 29일 첫연사로 나선 레이코프교수는 세계언어학계의 泰斗 촘스키의 이론에 도전, 「認識意味論」을 주창해 주목을 끌었다.

레이코프교수는 촘스키가 언어의 구문론과 의미론을별개로 본데 반해, 레이코프는 언어구조가 의미를 반영한다고 주장한것. 한편 이번대회에 참석한 학자들은 대회가 끝난후 民俗村과 慶州등지를 방문하며 오는 8일께 모두 출국예정이다.

전시회

釜山청년 비엔날레

제1회 釜山청년비엔날레가 8월1일부터 7일까지 釜山시내각화랑에서 열린다。이번제1회 비엔날레는 이벤트, 판터마임, 해시회, 강연회등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해외就業 쉬워진다

송출서류등 줄여…前科者 문호개방

노동부는 국민해외취업의 대폭확대 방침에따라 송출허가의 유효기간을 3개월에서 5개월로 연장하고 노동인력 송출절차를 대폭간소화, 오는 8월1일부터 시행키로했다.

30일 노동부가 밝힌 세부 송출허가신청시 제출하던 8종의 서류를 ▲송출허가신청서 ▲근로조건에 관한서류 ▲보험가입 증명서등 3건으로 줄이고, 사업체에대한 현지공관의 확인 처리기간을 5일이내로 규정했다. 또 현지에 송출된 근로자가 계약기간을 마치고 다른국내업체에 재취업할 경우는 현지공관에 신고하는것으로서 모든 절차를 대신하고, 외국업체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현지공관의 승인만으로 가능토록 했다.

노동부는 또 형사처벌자에 대한 해외취업제한을 대폭완화, 일반형사범의 경우는 형집행면제자, 형집행종료자및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유예기간이 경과하지않은 자중에 대해서도 고용주의 송출허가 요청이 있으면 송출을 승인키로했다.

한편 노동부는 이같은 해외취업문호의 개방에따라 외취업사기사건이 격증한것에 대비, 해외취업사기범들에 대한 처벌강화를 위해, 관계법의 개정안을 오는9월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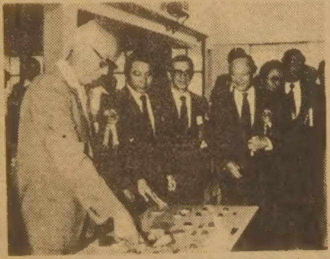
노동부는 또 현지에 송출된 근로자들의 무단이탈방지와 권익 옹호등 사후관리를 위해 현지공관과 교민회를 굿심으로한 보호대책기구설치를 추진중이다.

노동부는 이러한송출 세부지침확정과함께 30일 해외노무관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관련해외진출업체에 대해 인력송출전망등 각종 노동정보를 신속히수집, 노동부에 보고해줄것을 당부했다.

北傀간첩 은닉협의

朝總聯系1명 逮捕

【東京29日=聯】북괴공작원 黃成國의 일본내간첩활동을 조사중인 일본경찰은 29일 지난 79년7월께부터 黃을숨겨온 조총련계 韓尙一(32·東京都·식품점운영)을 범인은닉혐의로 체포하고 韓의집에서 관계자료를 다수 압수했다고 발표했다。



◇八堂 상수도 增設 준공식

南悳祐국무총리가 30일상오 八堂8만톤 상수도증설공사준공식에 참석 버튼을눌러 通水시키고있다。

한국일보 詩壇

비 오는 날

이 준 기

거리는 直角의 食
소나기 피할
한뼘 추녀 그립다。
그리지 오랜 행랑이웃을,
이웃에는
왁 가는 소리
가득하다。
빗물은
시궁창으로부터
불어나고,
무수히 반짝이는
빛과 빛
사이,
그 금모들
어둠의 空隙,
黃金박쥐떼
어지럽게
날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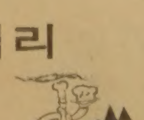
일본스테이크 집

전형적인 일본식

STORE HOURS
평 일:
스페샬점심시간
11:45AM—2:30PM
5:00PM—11:00PM
토요일:
5:00PM—11:00PM
일요일은 문을 닫지만 예약에 한해서는 언제든지 일을 합니다.

※파티, 단체예약등 환영함.

FRANCHISE베이커리



총 투자액 95,000달러
DOWN PAYMENT 40,000달러
융자액 55,000달러
※자신이 없는분에 대해서는 년봉 18,000달러
개런티(한사람일 경우)
(Wife가 같이 일할 경우 8,600달러 추가)
(부부 총계 26,600달러)

문 의 처 : Bread-Man Ltd.
240 Humberline Dr. Rexdale, Ont.
M9W 5X1
전 화 : 416—675—8930(MR. 오)

BREAD-MAN LTD.

동양식품

교민의 성원속에
나날이 발전함을
감사드리며, 집집마다
배달도 하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함 태 민올림

248—5131
1662 JANE ST.(로렌스)

D. Y. FOODS

국민倫理學會세미나 각국實態

이데올로기 批判교육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나

국민윤리학회는 최근 서울 汝矣島에있는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에서 「세계각국의 정치교육」이라는 주제하에 세미나를 열고 각국의 정치교육을 비교하면서 우리의 과제를논의했다. 세미나에서는 朴容憲교수(서울大)가 미국, 李己玉교수(慶熙大)가 소련, 朴淳英교수(福世大)가 서독·동독, 柳泰永교수(建國大)가 이스라엘, 呂鎭龍씨(국제경제연구원)가 중공의 정치교육에관해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주제발표가운데서 미국과 소련, 동독의 정치교육을 간추려 소개한다.

美國, 건전한 市民의 자질育成이목표

미국

미국의 정치교육은 「건전한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육성하고자 하는것이 정치교육의목적이다.

이같은 목적은 그들교육의 일반목표내지 상위교육목적에도 포함되어있는데 1918년 「중등교육개혁위원회」가 정립한 7개항(건강·기초적지식·가족성원으로서의 유능한자질·직업·市民性·여가선용·審美的인격)의 교육목적중 「市民性」에 포함된바있으며 38년 미국교육연합회가 公民的책임을 4개 교육목표(자아실현·인간관계·경제적능률·공민적책임)가운데 하나로 제시한바있다.

정치교육을위한 주된 敎科는 초등 교육의 경우 사회생활과(Social studies)이며 고등학교의 경우 公民科 (Civics)대학의경우는 일정하지않으나 미국정부 사회문제 미국사와 제도등이다.

이러한 교과목외에 다른 교과를 통해서도 정치 교육내용들이 취급되고있는데 학교교육을통한 정치교육의 영향력이 높은것으로 밝혀졌다.

蘇聯 공산주의의 투철한 革命투사길러

소련

소련의 정치교육의 목표는 소비에트·맨의 육성에있다. 즉 공산주의 사상에투철한 「붉은 혁명투사」를 길러내는데있다.

소련은 또 정치교육에 중요시되는 가치로 ①권위에대한 존경②집단성의함양③노동에 대한 존경④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확신등 4가지를 내세우고있다.

교육과정은 유년기 (생후 2개월~만6세)엔 소비에트·엘리트작업의 기초작업으로서 아동들을 집단속으로 접어넣어 수련생장시키고있으며 「공산주의자=마르크스·레닌주의자=黨의 공식노선신봉자」라는 等式을 믿게 교육한다.

소년기 (7~15세)에는 옥차브라타 (7~9세의 소년으로 조직된단체)와 피오네르(10~15세의 소년으로 조직된단체)라는 조직을 통해 교육을 시키는데 교과과정엔 선동적인 내용의 볼셰비즘 정신교육이있다. 특히 黨의 슬로건, 黨강령, 마르크스·엥겔스, 레닌, 공산당사등이 교육되며 정치적공동체의 일체감을 느끼도록 유도한다.

청년기(15~28세)에도 역시 정치교육이 2원화되어있는데 학교를통한 교육과 콤소몰 (청년공산주의자연맹)을 통한 교육으로 나누어진다.

소련의 고등교육기관에서는 전공과 관계없이 黨史와 마르크스·레닌, 변증법적唯物論, 철학사등이 필수과목으로되어있다. 콤소몰은 정치적 공산당사찰의 조직이 아니라 청년들에게 정치교육을 실시하고 사회통제를 가하는 도구로서 정부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동독

동독에서는 1945년 독일교육개혁위원회를 두었는데 여기에 소련구성원들은 대부분이 소련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이나 망명했던 공산당이거나 실천적인 경험을 가지고있었던 사람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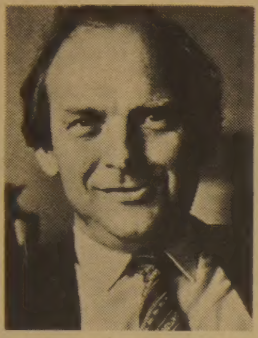
소련점령지인 동독은 소련의도움으로 「독일학교의 민주화의 원칙」이 1946년6월 전동독에 실시되었다. 이원칙은 서방측의 교육정책과 별다른차이가 없다고하지만 그내용의 핵심은 마르크스주의의 기본원칙에서 출발하여 전국민의 교육수준을 높이고 지배계급의 교육기회독점을 제지하려고 하였다.

1953년에는 각급학교의 모든 교재들이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입장에서 재조정되고 과학적 유물론과 민주주의의 애국주의가 모든교과에 들어가게 되었다.

동독은 또 학교교육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여기고 학교시간외에 여러집단조직을 만들어 청소년들이 사회주의의 원칙을 익히도록하고있다.【羅】

西獨선 이렇게…來韓한 全獨문제研究소장에 듣는다

「이데올로기批判교육」 또는 「政治교육」을 위한 학계의 논의와 관심이 활발하다. 이제까지의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反共교육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된다는 자각에서 출발한 이같은논의는 수단과 방법, 그리고 교육내용을 둘러싸고 아직은 초보적인 개념정립단계에 머물러있는 실정. 때마침 서울에서 열린 韓·獨통일문제국제학술회의에 참석한 西獨연방정부의 全獨문제연구소소장 메틀레프·퀸박사로부터 西獨에서의 정치교육 경험과 충고를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인터뷰 對談은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全得柱박사가맡아 수고해 주었다. 【편집자註】



◇『민주적인 인간교육은 선행한뒤이데올로기교육을 했으면한다』고말하는 서독 全獨문제연구소장 메틀레프·퀸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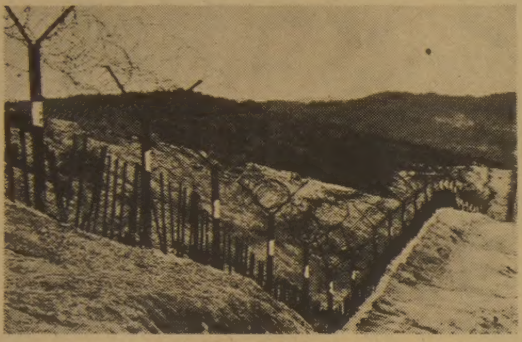
연방·州정부서 실시…전담기구 설치

分斷현실 民族귀속감 통해 統一노력

—한국은 지금 이데올로기 이론과 비판의 自律化, 「正義로운 민주복지국가 건설」의 우월성인식 提高, 한국적 정치이념의 토착화등을 위한 政治교육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 西獨에서의 政治교육의 기본목표와 형성과정에 대한 설명을…。

▲퀸=연방정부라는 정치체제에 맞춰 정치교육도 연방과 州에서 실시된다. 연방에서는 정치교육 연방센터가, 州에서는 州정치교육 센터들이 정치교육을 전담하는 기구이다. 정치교육 연방센터는 65년의 역사를 갖고있다. 1916년, 제1차 대전당시 고향을 지키기위한 「고향전선」을 형성한것이 그 시작이다.

제2차세계대전이후 미국은 독일의 기본적인 정책목표를 非軍國主義化와 民主化에 두었고, 이에따라 西獨정부는 정치교육을통해서 이같은 목표를 실현하고자 했다. 이것은 또한 副次的으로국



◇학계에서는 최근 이데올로기/비판교육에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있다. 과연 分斷현실에서의 政治교육은 어떤모습으로 실시되어야 한것인가에 우리의 지혜를 모아야할것이다.

민들로하여금 공산주의에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했으며, 자유민주주의의 상대적인 우월성을 민도록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한다.

—한국은 지난69년 정부기구인 국토통일원이 발족한 이래 각대학에 통일문제 연구소가 생기고 통일원안에서도 연수원을 통해 교육을 실시해왔다. 그러나 70년대의 이같은 교육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현재 이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단계라고 본다. 귀하가 所長으로 있는 全獨문제 연구소를 이기회에 소개한다면…。

▲퀸=全獨문제연구소(Das Gesamtdeutsche Institut)는 연방차원에서 동서독관계에관한 정치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브란트政權이후인 69년부터의 일이다. 동서독관계에 관한 정치교육의 목표는 분단상황에서의 동서독국민이 「독일민족」이라는 귀속감을 계속 유지하고 강화해 나가도록하는데 있으며 그 방법은 정보의 전달을 통해서이다. 이런 목표는 민족의 통일을 위해 가장중요한것이다. 우리는 서독자체만이아니라 동독의 모든것에 대해 알아야하며, 그럼으로써 민족의 귀속감을 통한 민족통일의 소망을 키워갈수가 있다고 생각한다. 북에 대해 우리는 방관이아니라 적극적으로 이용하자는 기본입장을 갖고있다.

—서독 정치교육의 목표가 反파시즘, 反공주의를 통한 자유민주화에 있으며, 특히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그 본질과 실체를 배워서 알도록 하는 「知共」을 통해 「勝共」으로 나아가고있다고 이해되는데, 그같은 정치교육의 구체적수단은 무엇인가.

▲퀸=주로 세미나, 서적, 영화를 비롯 포상을 전제로한 글짓기대회등 모든 보조자료를 이용하고 있다. 각급학교, 軍, 성인교육기관·시민대학등에서실시하는 정치이념교육은 방법에있어서 약간씩 차이가 있으나 기본내용은 똑같다. 한가지 특징이있다면 동독에서 간행되고있는 모든 신문·방송·도서출판·필름등을 직접 사용하도록 노력하는점이다. 이같은 다양한 정보자료를 통해서 동독이 선전하고 있는 내용과 동독의 정책담당자들이 실제로의도하고있는 내용은 서로 틀린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아볼수있다.

—서독국내의 사회안정, 경제성장등이 정치교육의 목표달성에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하는데, 한국의 정치교육에 대해 충고하고싶은 말이 있다면…。

▲퀸=사회안정이나 경제적 성공이 정치교육의 목표달성에 도움이 되었는지는 아마도 정치·경제적인 위기가 닥쳤을때라야 측정이 가능할 것이다.

한국의 정치교육에 대해서는, 보다 자주적인 인간교육, 보다 사회복지주적인 인간교육을 기본적인 지향방법으로 채택토록 권고하고 싶다. 그다음으로는 북한의 공산주의와 세계의 공산주의, 그리고 기타세계의 여러가지 이데올로기들을 규칙적이면 「원문 그대로」받아들여 그것을 우리의 환경과 조건에 맞추어 비교·분석함으로써 그 장·단점을 알도록 하는 일이 뒤따라야한다고 본다.

나의 이력서

〈題字·윤 치 영〉

윤치영 ⑧

그리운 恩師들

兪吉濬·周時經·崔奎東등 선구자 많아

사랑과 꾸짖음으로 民族精神 일깨워

70여년전 중앙학교시절을 생각하면 지금도 여러스승들의 모습이 떠오른다.

民族학교답게 교장에서 부터 갓부임한 평교사에이르기까지 모두가 愛國愛族志士요 國士였다. 때문에 나이어린 우리들에게 있어 그분들은 새벽에 빛나는 샛별과같은 훌륭한인물들로 떠받들렸고 한말씀과 一擧手一投足이 그대로 진리이자 우리가 나가야할 방향이었다.

요즘 극소수학생이 교사에게 대들어 물의를 빚은 얘기가있는 모양이나 당시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우리는 스승을 하느님처럼 떠받들었고 스승들도 학생들에게 때로는 준엄하게 꾸짖었지만 부모와같은 따뜻한사랑으로이끌어주셨다.

당시 중앙의 교사陣은 綺羅星 그대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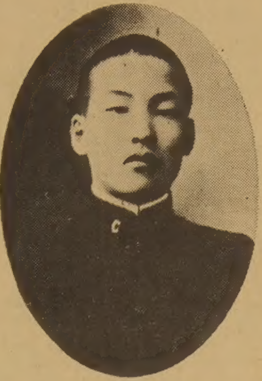
내가 재학때 兪吉濬선생을비롯, 柳一宣(數理) 周時經 (한글) 李光鍾(한문) 徐상린 尹奎惠 尹致旿(이상영어) 李章商(化學·日語) 崔奎東(代數) 安一英(幾何) 李重華(地文學) 金仁湜(唱歌) 李恒植선생님(체조)들이 가르치셨다.

소승들은 사회적으로도 존경받는 분들이어서 일부 신식양복派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한복에 두루마기차림이셔서 의젓한 수염의 한복차림을한 선생님이 강단에서면 참새처럼 떠들던 우리들은 찍소리도 못하고 강의를 들었다.

이런 스승들이어서 학과시간마다 어느분은 울먹이며 『너희들은 공부 열심히해서 반드시 나라를 찾아야된다』고 역설했고 다른선생님들도 자기담당과목외에 우리역사와 日帝의 不法침략, 그리고 세계정세를 은밀하게 들려주시는등 민족사상을 일깨워주셨다.

훗날 내가 민족주의자로 일관하게된것은 중앙학교때받은 교육과 감화가 결정적 역할을했다고 스스로 생각한다.

스승들중에 요즘말하는 인기교사는 周時經선생, 東京유학을 통해 이땅에 처음으로 근대數學을 도입한 柳一宣선생과 그가 수송발굴(현淸進洞)에차린 精理舍가 배출한 4大秀才 崔奎東 安一英 李潤載 李重華선생들이 꼽혔다. 한국최초의 造船工學士로 東京帝大출신인 尙호선생도 名강의였다.



◇17살인 1915년 중앙학교재학때 校服차림의 筆者.

周時經선생의 지리와우리역사강의는 많은인기를모았다. 그러나 그분이 그렇게도 심혈을기울이며 연구하던 한글문법, 특히 訓民正音해설은 당시 우리에게는 어렵게만여겨졌다.

한글 시간에는 熱講도중간간이 「이놈들」하며 두번세번注入시켰다. 강의 시간이되면 周선생은 古典을 싼보따리를 들고 들어와 풀어놓고 강의를했다. 그분은중앙외에 다른학교에도 강의를맡아 늘 책보따리를 끼고다녀 학생들이 「周보따리」라는 별명을 붙였다. 자그마한키에 영양부족때문인지 혈색이 좋지않았다.

그러나 일단 강단에서면 둔중한 목소리로 이내 우리말강의에 스스로 도취되곤했다.

『이놈들, 똑똑히 들어야된다』고 하시면서도 무척인자한분이었다. 한번은 강의가 시작되기전 흑판에 直線을 긋고 『이線이 크냐작으냐』고 물으셨다. 학생들은저마다 「크다」 「작다」 「길다」 「짧다」며 떠들썩하게 논란을 벌였다.

이때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동료들의 논쟁을 지켜보는 나에게 호통이 떨어졌다. 『이놈 致暎아, 너는 왜 말이없느냐』

나는 엉겹결에 『도대체 비교할것이 없어 크고 작다는 대답을 못하겠읍니다』라고 했다.

선생은 비로소 『옳거니 옳어!』하시며 얼굴에 미소를 지으셨다. 그후부터 나는 선생님의 각별한 사랑을 받았다.

한글을 그토록 아끼셨던 선생은 亡國의 슬픔과 굶주림을 이기시고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말과 역사교육에 힘을기울이셨다.

나중 내가 하와이에서 교민들에게 한글과 독립정신을 가르친것은 모두가 선생의 가르침덕분이었다.

우리나라 近代私學의 선구자이신 白儂 崔奎東선생은 한마디로 교육을위해 태어나신분이었다. 精理舍출신인 그는 당시 수학에는 수재로 꼽혔다. 따라서 精理舍에서 柳一宣선생한테 수학을 배우면서 공부가 끝나면 柳선생과 나란히 중앙학교등에와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崔선생은 깡마른 몸매에 학생들에게는 늘 다정하게 대했다. 崔선생역시 일단 강의시간이되면 어려운 算術을 척척풀면서 자상하게 설명했다. 그저 全身이 교육에대한 熱情으로 불탔다. 그러나 선생의 강의내용은 우리같이 어린학생들에게는 어렵게 여겨졌다.

代數시간마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오고 演繹法 歸納法이란 용어들이 쏟아져 나왔다. 중앙에서 공부가 끝나면 나는 다시 中東夜學校로 가야했다. 선생께서 20여명의 학생들을 추려 자신이 운영하는 오늘의 學院과같은 中東학교에서 특별강습을 하셨고 그래도 부족할경우 자택으로 끌고가서는 밤늦게까지 가르치셨다. 지금도 이따금 선생께서 강의도중 「情의 문제냐 義의문제냐」며 철학적瞑想에 잠기시던 모습이 생각난다. 崔선생께서는 30여년간 中東학교를운영, 숱한 英才를 길렀고 해방후에는 서울大총장으로 초빙, 재임하다가 6·25때 赤狗들에게 강제拉北되어 北에서 눈을감으셨다. 우리私學의 개척자이자 교육의 선구자로서 통하기짝이없는 일이다.

現代人의 健康百科

소화성궤양의 경과

치료쉬워도 再發잘돼…暴飮등삼가야

위와 십이지장궤양은 서둘러 적절한치료를 받게되면 대개는 치유된다. 치유되는 시기는 1개월 이내에 절반정도, 1~3개월 사이에 나머지의 6분의1정도인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3분의1정도는 장기간 궤양이 완전 치유되지 않은채 남는다.

소화성궤양은또 절반정도가 2년안에 재발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래서 토혈과 위통이 없는 궤양은 2년안에 반드시 재발한다는 말까지 나돈때가있다. 아뭏든 소화성궤양은 재발률이 높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궤양에 의한 토혈이나 하혈이 눈에 띄는 상태 즉 현저한출혈은 2~3일정도면 멋게 마련이다. 육안으로 잘 알아 볼수 없는 출혈은 潛血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2~3주정도 경과하면 대개는 멋게마련이다.

궤양에서 일어나는 증상은 3~4주일이면 대개 없어진다. 그러나 증상이 가셨다해서 병이 나은것이 아니란것을 알아야한다.

궤양이 치유되려면 증상의 소실은 물론 X선이나 내시경검사로 궤양의 흔적을 찾아 볼수 없어야 한다.

위와 십이지장궤양은 적절한치료를 받게되면 대개는 6~8주사이에 깨끗이 낫는다. 그러나 앞서 설명했듯이 이들은 치유가 비교적 쉬운반면 재발이 잘되는 편이기 때문에 일단 소화성궤양을 앓았다면 비록 깨끗이 나았다해도 항상 재발을 염두에두고 섭생에 조심해야 한다. 즉 폭음,폭식,과로등 위에 부담을 주는 일을 삼가야 한다.

다행스런일은 합병증이 없는 순한 궤양은 비교적 잘 나으며, 생명에 별다른 위협은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궤양이 생명에 위협을 주는 경우는 암성변화, 대량출혈, 천공등이 있을때 이다. 위궤양이 암으로 변하는 일은 비교적 드문편이다. 특히 십이지장궤양이 암으로변하는 일은 거의 없다.

소화성궤양은 4계절 어느때나올수있는 것이지만 겨울철에 좀 많아지는 경향이 있다. 또 식사를빨리, 불규칙적으로 하는사람과 뜨거운것을 즐겨 드는 사람들이 잘 걸린다고 알려져있다.

朴灵南【醫博·漢陽大醫大내과교수】

연구지원자 발표

大宇문화복지재단 1차로 89명선정

大宇문화복지재단 (이사장 李用熙)은 29일 금년도 제1차 학술연구지원대상자 89명을 선정, 발표했다.

2차대상자도 곧 발표할예정인데 금년에는 수학분야를 중점지원분야로 지정, 워크숍 비용을 지원해 주기로했다.

동재단은 학술연구지원사업외에도 자료센터건립,학술지간행, 기본도서번역보급, 국제학술교류사업등을 실시 또는 추진하고 오는 83년말까지를 시험기간으로 설정, 한국학 연구를위한 기본참고도서개발, 影印도서봉사사업, 학술진흥과 학술도서간행지원사업을 펼 계획이다.

금년도 1차 학술연구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인문사회과학분야=李基文·沈在箕·李廷玟·安清市·金容德·金永植·權泰煥·梁秉祐(이상서울大) 蘇興烈(梨大) 朴商台(全南大) 劉仁善·金華榮·洪性六(이상高大)등 27명

▲자연과학분야=張會翼·中菊朝·李鎭徹·池東杓·閔弘植·盧承卓·曺元鎬·金永植·金斗哲·金榮中(이상서울大) 姜附榮·姜雄基·權蘭仁·李哲秀·崔英淳·李世永·趙成浩(이상高大) 朴用文·李東熙·千文碩·金根壽(이상延世大)등 46명

▲수학분야=10일부터 15일까지 啓明大 동서문화관에서 열리는 제1회 전국순수및 응용수학 워크숍지원. 이를위해 金正洙교수(서울大)를 위원장으로한 준비위원회가 구성됐다.

▲복지분야=具然哲교수(梨大)를 책임연구자로 大宇문화복지재단이 경영하는 낙도·오지지원사업에 대한 개발연구. 崔振學(대한의학협회부회장) 金駉舜교수(延世大)등 4명으로 구성된 제1반은 新安·茂朱지역에 대해, 河漢湜(대한병원협회사무총장) 崔三變교수(梨大)등 4명으로 구성된 제2반은 莞島·珍島지역을 각각 조사한다.

少年隊 야영대회

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은 8월6일~11일 덕유산 종합야영장(전북무주군설천면)에서 연장대 야영대회를 갖는다. 창립60주년 기념으로 내년에 덕유산에서 열게될 만명규모의 국제잼버리를 앞두고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5천명이 참가한다.

◇오늘 바둑쉽니다.

국민학교單位 노인회 경기華城서 정식발족

전국첫번째의 국민학교 학구(學)단위노인회가 31일경기華城郡(56개국민학교)에서부터 결성식을 갖고 정식발족한다.

노인들의복지와 사회교육활동지원을위해 대한노인회(회장李圭惠)가 정부협조를얻어 현재일반행정조직단위로된것을 학구단위로 조직개편, 운영키로한후 첫 결실이다.

국민학교학구단위 노인회는 앞으로 전국에 확대, 각국민학교와 연결을 갖고 ▲학교시설의이용, ▲노인교실의설치운영, 소풍, 운동 회동때 어린이들과함께참가하며 ▲교사들의 지원을받은 노인교육사업 ▲지역사회 청소년선도사업 ▲사회봉사활동등을 효과적으로 벌일계획이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83-2361

張吉山 (1620)

黃晳暎 作 崔然石 畵

第四部 逆謀 第一章 彌勒 (80)

다시 설유징이 물었다.

『그들이 토포군을 일으킨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단 말이오?』

『그렇습니다. 저희 송방에서는 거의 토포군의 조련이 끝날 즈음하여 알아내고 군사 습련장의 모습을 확인하였소. 그러나 실수하였지요. 산채가 두곳에 있었기 때문에 장두령의 활빈당으로 세간에 알려져 있어서, 그만 자비령이 토포지역인줄 알았던겁니다. 실수는 관군쪽에도 있었지요. 이세백 이래로 감영에서는 해서 활빈당의 근거지가 구월산이라고 알려져 왔던 겁니다. 관군은 호랑이사냥에 동원시킨 군사라고 소문을 냈었지요』

박대근이 자기 역할에 대하여 말하였고 설유징이 다시 물었다.

『관군의 편제는 어떠했으며, 토포장은 어떤 사람이오?』

옥여가 말하였다.

『칼 쓰고 말 타는 유군과 창을 가진 보병, 그리고 포수와 궁수 합하여 이백여명이었다구 그럽디다. 그리고 저들은 구월산 인근 사읍(四邑)에 비밀히 명하여 군병(郡兵)과 향리 민병을 동원하여 인성(人城)을 둘러 구월산의 퇴로를 막았소』

김기가 말하였다.

『특히 은률 안악과 송화에는 우리 식구가 내려가 주막을 하거나, 아니면 군의 향소나 장교중에 복심을 심어두어 미리 관의 동향을 알아내곤 하였는데, 토포군은 이미 한 달전부터 은밀히 기찰하여 저들을 모조리 잡아냈던 것이오. 내가 잘 알지는 못하나 아까 박좌장이 토포장에 대하여 잠깐 말했듯이 그는 매우 유능한 장수임에 틀림이 없소. 그자는 용병에 능하고 또한 기찰에 빈틈이 없소. 그러나 그자는 양반들의 도구에 지나지 않소이다. 그의 약점은 바로 아까도 말이 나왔듯이, 소신있게 일을 해나가고 끝까지 밀어붙이는데 뒷힘이 되어줄 세력을 조정 내에서 잡고있지 못한 점이오』

『역시 그렇습니다. 그는 이번 토포의 실패에 책임을 지고 감영을 떠났지요. 아마도 다시는 같은 일을 수행하지 못할거요. 그가 임시의 토포용에 지나지않았다는 것은 동산꽃 만호라는 직임이었는데도 줄곧 감영에서 군사조련이나 습진에만 열중하였고 토포가 끝나자마자 상경한것을 보아도 알수 있읍니다. 즉 신엽은 토포하는 일 외에는 별로 최모를 믿지않는다는 뜻이겠지요』

『토포가 어떻게 진행 되었소?』

설유징의 물음에 옥여가 답하였다.

『그놈은 대를 나누어 선진은 구월산 남록을넘어 막바로 된목이골 산채를 급습하고, 후진은 송화로부터 수레고개를 넘어 산채의 정탐처를 유린하고 산채와 연줄이 닿아있는 사선골과 탑고개를 덮쳤소. 먼저 사람들을 집에서 쫓아내고 조금이라도 저항하면 가차없이 살해하였으며, 집에는 불을 지르고 모아놓은 사람중에 산채와 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가려내어 심문하였지요. 토포는 해 뜨기 직전 미명에 시작해서 정오 무렵에는 다 끝났읍니다. 기찰이 한달, 군사 조련에 한 달을 보낸 그들은 안개처럼 산밑에까지 스며 들어와서는 일시에 덮친 것이지요』

『접전에서 이쪽이 불리했던 것은 급습을 받은 외에 또 어떤 것이 있소?』

옥여가 말하였다.

『총포가 없었던 점이지요. 먼 거리에서 숨어서 많은 사람들을 쏘아 살상시킬 수가 있었으며, 이쪽에서는 단병접전 외에는 아무런 준비도 없었고 병장기도 없었소』

코리아 하우스

KOREA HOUSE

한식전문, 즉석불고기, 정종, 맥주

666 BLOOR ST. W. TORONTO, ONT.

*536-8666

거 구 장

— 특 별 메 뉴 —

즉석불고기, 선지피 해장국, 멍게, 생선회.

한식, 중화요리, 케네디안식

※회갑, 생일파티, 동창회 피로연

영업시간 : 11A. M. ~새벽2시까지

5 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곽 정 렬, 김 선 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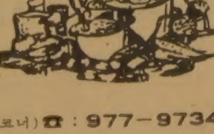
意安飯店 (의안반점)

홍콩식 그대로의 분위기, 새벽4시까지 영업

일류요리사가 만드는 전통적인 광동식 요리,

경제적이고 실질적인 값싸고 맛있는 음식.

※항상 신선한 럽스타, 게, 굴, 해삼, 전복등을 준비해 있읍니다.



영업시간 :

월~금 : 4PM~4AM

토요일, 일요일 : 12PM 부터

171 DUNDAS ST. W.

(Spadina동쪽으로 Chestnut코너) ☎ : 977-9734

SALESMAN REQUIRED

TOP SALARY

ALL BENEFIT

DOMINION CITRUS & DRUGS

THE ONTARIO FOOD TERMINAL

CONTACT MR. JAY ZELIKOVITZ

TEL : 259-5481 ext. 17

오사까 하우스

각종 술을 써비스 합니다.

값싸고 맛있는 식당(초밥·국수류등)

부디 한번 찾아주세요(쓰끼야끼, 덴뿌라, 사시미)

※스토아시간 :

월~목 11 : 00AM~10 : 30PM

금요일 11 : 00AM~11 : 00PM

토요일 5 : 00PM~11 : 00PM

일요일 5 : 00PM~10 : 00PM

OPEN 7 DAYS

12 TEMPERANCE ST.

☎ : 368-2470

Queen / Bay / Temperance St. / Yonge / King

SHANGHAI RESTAURANT

메 뉴 : 군만두, 전만두, 짜장면, 우동등

Open Hours : 화~금 11 : 30AM-12PM

일요일 11 : 30AM-11PM

(공휴일도 문 엽니다)

주소 : 334 SPADINA AVE . (NEAR KENSINGTON MARKET)

☎ : 864-9347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Hydrotherapy

★Downtown Office : (416) 537-6685

8AM - 6 : 30PM

621A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Willowdale Office : (416) 222-9485

7PM - 10PM

244 Finch Ave. E. (Yonge St 에서 Bayview 거의 다가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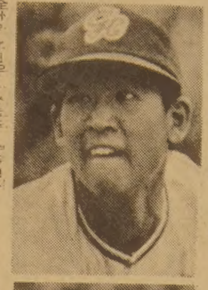
★평일 오후3시및 토요일에 오시는 분은 미리 전화주십시오 전화 : (416) 222-9480

'81 鳳凰大旗 의 고교로 〈全北〉
전국49팀 強訓현장 올해의 스타는…

全州·群商은 先頭 다투는 「이웃難敵」

群商선 趙啓顯·張虎翼콤비

全州高는 "中央무대서 雪辱한다" 다짐


◇群商 趙啓顯

◇張虎翼

◇全州高 白幸宇

◇咸周鉉

全州와 群山은 고속도로 개통된 4차선 대로로 한층 가까와졌다. 그러나 全北도내 2개뿐인 고교야구팀 全州와 群山商의 사이는 아득히 멀기만하다. 선수스카웃경쟁, 전국대회의 지역대표권획득을위한 격렬한싸움으로 두팀은 물과 기름처럼 유리된 상태. 74년도 鳳凰大旗 4強까지 올랐던 全州商高는 과열경쟁을 이기지못해 해체되었고, 80년청룡기 예선서는 全州, 群山의 팽팽한 대립으로 경기장소를 다른지방인 淸州로 옮기는 촌극을벌였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이 바로 이고장에 번지고있는 뜨거운 야구열기를 대변해주는것이다. 『수많은 영재를 길러낸 명문 全州高가 야구 좀 못한다해서…』라는 위로는 全州高동문들에게 뺨얻어맞기 맞춤한 소리. 湖南의 기수를 자처하고 있는 群山商高는더 말할것도 없다.

72년 崔寬洙감독의 정성어린 지도로 황금사자기대회를 제패, 불모지로 버려져온 湖南에 고교야구의 불을 지른 群山商高는 금년에도 짜임새있는 팀웍으로 이지역의 선두주자로 달리고있다.

지난해까지 의외로 침묵을지켜오던 群山商은 금년 재주꾼 신입생 趙啓顯 張虎翼, 高長亮, 趙祐成등을 받아들이면서 활기를 띠기시작, 시즌첫대회인 대통령盃를 석권했다.

群山商우승의 주역은 배포좋은 1년생 투수趙啓顯(17). 가장 어려운 고비에서 群山商이 믿는 마지막 보루가 바로 趙啓顯이다. 신장1m76, 몸무게 69kg의 아직 여린체격이지만 趙啓顯은「사막의 여우」라는 별명처럼 영리하게 상대팀강타자들을 재치있는 변화구와 누뇌피칭으로 꼼짝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 유연한 허리에 타자의 허를찌르는 변화구, 슬라이더가일품이다.

趙啓顯과 배터리를 이루고있는 1년생 주전포수 張虎翼(18)도 금년 시즌 고교야구무대를 휘젓고다니는 「겁 모르는 아이」다. 1m76, 72kg의 張虎翼은 群山南국민학교 5학년때부터 群山中, 群山商에 이르기까지 6년째 趙啓顯의 짝이 되어 팀을 이끌어 오고있다.

趙啓顯과 張虎翼은 타격에도 대단한 자질을 보여, 대통령盃대회의 풍이다. 은 위기를 구해냈다. 5번타자인 趙啓顯은 世光高와의 준결승에서 결승 2타점과 구원투로 群山商을 구했으며, 張虎翼은 慶南高와의 1회전연장 11회말 2死후 결승타로 초반의 위기를 구했다.

趙啓顯는 투수로서의 대성을 위해 될수있는한 마운드에 자주 세우지 않겠다는것이 群山商 팀관계자의 여유있는 말이다. 무거운 구질의 커브를 구사하며 힘이 좋은 선배 투수 李東錫(2년), 姜大浩(3년) 등이 있기때문이다.

群山商이 자랑하는 또 한명의 스타는 수비좋고 타격좋은유격수 林東求(3년)다. 趙啓顯과 함께 청소년대표였던 林은 최근 타격에 조금 소홀한 편이나 고교 최고의 유격수로 대학팀 감독들을 설레게 하고있다.

群山商에 가려 금년 한번도 전국무대에 나서지 못했지만 全州高는 어느팀보다 무서운 방망이로 鳳凰大旗를 벼르고 있다.

『趙啓顯이가 다른팀들에게는 잘 던져도 우리팀에겐 안되지요. 마 터집니다』

대통령盃, 청룡기 진출권을 잇달아 群山商에게 빼앗긴 분풀이를 최근 체전예선에서 설욕했다고 崔正相감독은 신이 나서 설명한다. 금년 群山商과의 통산전적은 3승 1무3패. 실력이 뒤지지않는데 운이 나빠 서울운동장엔 한번도 가지못했단다.

崔감독은 다른지방팀들에게 아직 한번도 선보이지 않은게 강점이며 또 선수들이 큰대회에 한번도 못나간게 약점이라고 털어놓는다.

全州高의 기둥은 투수겸 1번타자 白幸宇(3년). 1m73, 65kg의 자그마한 체격이지만 야구센스가 뛰어나 거의 올라운드 플레이어로 팀을 끌어간다. 왼손으로 코너를 찌르는 직구와 커브등 볼·컨트롤이 좋다. 배팅과 기동력이 뛰어나 원래 중견수로 활약했지만 마운드보강을 위해 금년에야 투수로서의 본격연습을 시작했다.

白을 리드하는 포수 咸周鉉(3년)도 攻守에서 팀의 중심을 이루고있다. 어깨가 좋아 사정을 잘 아는 群山商 주자들은 아예 2루로 뛸생각도 않는단다. 타격도 3할대로 4번또는 5번을 맡고있다.

글=方錫崙기자
사진=徐鍾道기자

배구不振 레슬링서 수확

夏季U大會 熱戰 12일 어제 폐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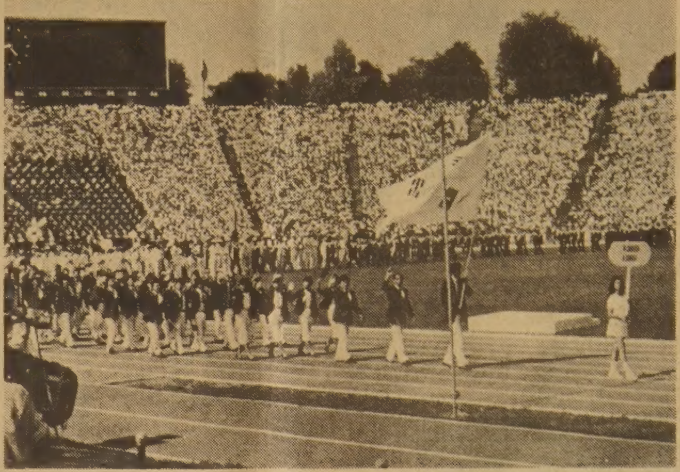
籠球의 長身개발 시급

테니스 銅1개에 그쳐

陸上·체조·펜싱은 수준격차 너무심해

이번대회에는 각국이 대표급 선수들을 많이 파견했으며 모두 출전했는데 그레꼬로망형서 方大斗가 첫 동메달을 따내 활력소가 되었다. 남자육상, 여자수영, 체조, 펜싱, 레슬링등서는 세계 최고수준의 선수들이 등장했다. 자유형서는 힘이 달렸지만 투지로 분발, 자유형서만 3개의 메달을 따냈다. 이같은 상황에서 한국의 입상전망이 흐릴것은 당연했는지 모른다. 柳南植은결승전서아깝게주저앉았다. 참가각국은 이대회를 철저히 대비했으며 특히 동구권국가는 2년간에 걸쳐 해외전지훈련을 쌓기까지 했다는것. 7개종목 74명의 선수단이 참가한 한국은 레슬링서 를 풍한 수확을 올렸다. 레슬링 경기에는 세계 상위랭커들이 바 선수에 져 금메달의 뜻을 이루지못했다. 우승한 루바 선수는 스피디한 기술이 돋보였다.

79년 멕시코 대회서 우승했던 남자배구는 日本에 패해 4위로 밀려났다. 그러나 예선서 中共을 꺾고, 준결승리그서 蘇聯을 제압한 실적


◇한국선수단이 대형태극기를 앞세우고 입장하고있다. 한국은 은1, 동4개를 차지하여 종합20위를 마크했다.

排球 日本新人팀에 진것은 충격적

루마니아 제11회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는 30일하오10시 (한국시간) 12일간의 열전을 마치고 폐막됐다. 이번대회에서 蘇聯은 금38, 은38, 동35개를 획득, 메달레이스 수위를 차지했으며 한국은 은1, 동4개로 프랑스와 공동20위에 머물렀다. 더구나 中共이 금10개를 차지하여 종합 4위로 뛰어오른것은 주목할 사건이었다. 당초 한국은 남자배구에서 은, 레슬링 동2개, 테니스서 은1개, 동1개를 목표로 했었으나 테니스와 배구서 부진, 예상보다 저조한 성적을 마크했다.

은 높이 평가해야할것이다. 대표선수가 상당수포함된 中共을 꺾은 한국이 대표선수가 1명 밖에 없는 신인 위주의 日本에 진것은 충격적이었다. 3·4위 결정전서, 게임을 해낸선수는 金浩哲, 張允昌 뿐이었고 姜萬守는 기복이 심했으며 文湧冠과 金炯宰는 경험이 적어 고비를 넘기지 못했다.

남자농구는 처음부터 입상을 기대하지않았으나 中共을 예선서 꺾고 10위를차지, 성과를 올렸다. 74년 이후 한국은 中共과 다섯차례 대전했는데 대부분 게임서 20점차로 패했었다. 터키, 세네갈, 핀란드와는 대등한 경기를했는데 앞으로장신을 개발하지않으면 상위진출은 어려울다.

테니스는 金鳳玉 金東大가 혼합복식서 銅메달1개에그쳐 기대에 처졌다. 세기에서는 상위수준이었으나 체력이 달려 스매싱과 리시브에서 뒤떨어졌다.

육상, 체조, 펜싱은 수준차가 너무 심했다. 육상의 金福柱와 張在根은 자신의 국기록도 유지하지못한채 준결승서 탈락했다. 펜싱은 세계정상급선수들이 모두 출전하는바람에 예선서 탈락, 하위로 처졌다. 남자체조 역시 부진, 세계수준에는 미치지못했다.
【부쿠레슈티=楊森특파원】

金喆鎬 시원한 KO勝

腹部連打 13回에 젠슨눕혀

WBC 슈퍼플라이급

【釜山】무더위를 씻어내린 시원하고 통쾌한 KO펀치였다. 프로복싱 WBC슈퍼플라이급챔피언 金喆鎬(20)는 29일밤 이곳 九德체육관에서 지명도전자인 美國의 윌리·젠슨(27·동급1위)을 복부연타로 13회 1분20초만에 KO시키고 타이틀 2차방어에 성공했다. 金은 발이 빠르고 왼쪽잽이 날카로운 젠슨을 맞아 8회까지 고전했으나 뛰어난 체력을 이용하여 9회부터 세계랭커를 몰아붙여 경기의 주도권을 잡았으며 13라운드에서 젠슨의 복부에 左右 훅을 난타, 통쾌한 KO로 경기를 끝냈다.

金의 매니저인 金浩然씨는 경기가 끝난후 金의 3차방어전상대는 日本선수가 될것이며 경기는 9월말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金은 이날의 승리로 프로데뷔이래 17승(7KO)1무 1패의 전적을 마크했다.

◇또 13回 KO勝 쓰러진 도전자 윌리·젠슨. 13회에서 젠슨이 복부에 金喆鎬의 左右연타를맞고 쓰러지자 레이·솔리스 주심이 카운트하고있다. 金이 코너에 서있다. 【釜山聯一誌】

協成商 16強올라

裵明鎬 해트트릭 發安農꺾고
전국秋季 중고축구

【議政府=聯】協成商(대구)은 30일 의정부 공설운동장서벌어진 전국추계 중·고축구연맹전 3일째 고등부 3조경기에서 FW 裵明鎬가 해트트릭(3골)을 기록하며 發安農高(경기화성)를7-1로 대파하고 2연승을기록, 가장먼저 16강에 올랐다.

이날강호 永登浦工은 慶元商을 4-0으로 물리쳐 16조에서 1승을 기록했다.

◇제3일 전적
▲고등부 3조
협성상고 7(6-1, 1-0)1 발안농고 (2승)(1패)
▲동16조
영등포공고 4(3-0, 1-0)0 경원고 (1승)(2패)
계성고 3(2-1, 1-0)1 경민상고 (1승)(1승1패)

81년 J陸上오픈에 美·日등7개국參加

81년도 국제주니어육상오픈선수권대회(8월15~16일·서울運)에는 30일현재 美國 日本등 7개국만이 정식으로 참가신청을 해왔다.

이번대회에는 16개국이 참가를 희망해왔으나 최종 엔트리마감일인 지난5일까지 美國을비롯, 日本, 自由中國, 이라크,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홍콩등 7개국에서 1백36명의 선수단이 엔트리를 제출해왔으며 쿠웨이트는 참가를 통보해 왔다.

대회조직위는 참가폭을 넓히기위해 대회개막 3일전까지 엔트리마감일을 연기키로 했다.

엔트리제출 현황에 따르면 美國이 62명 (임원11·선수51)의 대규모선수단을 파견하며 이라크24명, 日本13명, 캐나다 12명등이다.

◇참가신청국현황
▲美國=62명 ▲日本=13명 ▲自由中國=6명 ▲이라크=24명 ▲印尼=3명 ▲馬聯=10명 ▲캐나다=12명 ▲홍콩=6명

麻浦·大邱 준결激突

小崗盃중고테니스 公州·蔚山工 각각제압

제9회 小崗盃 전국중고테니스대회 4일째경기가 30일 장충과 梨花女大코트에서 벌어져 남고부준결승에서 麻浦高와 大邱高가 선승, 준결승에서 격돌케됐다.

대회 2연패를 노리는 麻浦高는 이날 준준결승서 公州高와 접전끝에 3-1로 힘겹게 이겼다. 첫단식에서 洪性哲은 公州의 金載德을 6-3, 2-6, 8-6으로 이겼으나 鄭國翰이 2차단식에서 公州의 梁金奎에게 2-6, 6-1, 6-8로 패배했다.

麻浦高는 복식에서 洪性哲·鄭國翰조가 金載德·柳志坤조를 7-6, 3-6, 6-4로 눌러 승기를 잡고, 3차단식서 安寶鍾이 柳志坤을 6-2, 6-3으로 완파, 포를 3-1로 이겼다.

大邱高는 黃象模·金昌運·李成浩의 활약으로 蔚山工高를 3-0, 스트레이트로 완파했다.

淸州高는 李揆晃과 金鎭圭

한국, 金3·銀1·銅2획득

런던 국제척추장애자 체육대회서

런던에서 열리고있는 제30회 국제척추장애자 체육대회에 참가한 한국선수단이 탁구단식부문에서 금메달3, 은메달1, 동메달2개를 따냈다고 30일 원호처에 전문으로 알려왔다.

지난달 26일부터 8월1일까지 열리는 척추장애자 체전에는 40개국에서 8백40명의 선수가 참가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탁구와 궁도 2개부문에상이군경으로구성된 12명의선수가출전하고있다. 메달획득자는 다음과같다.

◇금메달 ▲禹龍浩(32) ▲李雲鳳(36) ▲金基勳(33) ◇은메달 ▲張春培(26) ◇동메달 ▲高明坤(34) ▲金昭父(38)

U선수단 오늘歸國

【부쿠레슈티=楊森특파원】제11회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에 참가한 한국선수단74명은 張忠植단장인솔로 31일하오4시 부쿠레슈티를떠나 귀국한다.

선수단은 귀로에 취리히에서 이틀을쉬고 8월3일하오 7시50분 KAL편으로 金浦공항에 도착할예정이다.

83년 캐나다 에드먼튼대회에선 이번대회의 선택종목이었던 레슬링대신 사이클을채택키로했다.

학생신분 어긋나는行動 처벌

權彝赫 서울大총장

【大邱=聯】權彝赫서울大총장은 29일『학생들이 학생신분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여 사회적으로 처벌을받는 경우에는 구제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權총장은 이날하오 啓明大 강당에서 5백여명의 학부모들이 참석한가운데 열린 慶北·大邱지역 학부모초청 간담회에서 소요사태와 관련한 학생징계문제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밝히고『학교측은 문제학생들을 단1명이라도 더 구제하기위해 온갖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파나마격파 월드게임野球

【샌타클래라=聯】한국은 30일 월드게임 야구2차전에서 파나마를 7-6으로 격파하고 2승을 올렸다.

한국은 이날 8회까지 6-4로 뒤지다가 9회말 마지막 공격에서 3득점, 극적으로 게임을 뒤집었다.

한국야구팀은 31일 공동선두의 美國과 패권을놓고 맞선다. 美國은 이날 濠洲에 11-7로 이겼다.

한편 태권도 첫날경기에서 헤비급의 朴鍾萬은 캐나다의 다렐·한네간에 판정패, 은메달에 그쳤다.

그러나 한국은 이날 핀급의 權基文, 플라이급의 梁基樓등이 2체급에서 金메달을 획득했다.

◇제5일 전적
▲야구 ▲2차전
파나마(2패) 000 001 050 6
한국(2승) 100 003 003 7
호주(2패) [illegible] 7
미국(2승) [illegible] 11
▲태권도 ▲헤비급 결승전
다렐·한네간(캐나다) 판정 朴鍾萬
▲핀급
權基文 판정 이대성(한국계美國인)
▲플라이
梁基樓 판정 바니토(스페인)

浦鐵工高 8強진출선착

계속경기서 大田高에 9回逆轉勝

화랑기 高校야구

【釜山=聯】전국대회에 처음출전한 浦鐵工高가 제33회 화랑기쟁탈 전국고교 야구대회 8강에 선착했다.

浦鐵工高는 29일 九德구장에서 벌어진 대회2일째 2회전에서 大田高에 6회까지 4-3으로 리드한채 일몰 정지게임이 되어 30일 계속된경기에서 9회말 2死후 2안타 1적실로 결승점을뽑아 大田高에 5-4로 역전승, 준결승에 진출했다.

淸州高는 李揆晃과 金鎭圭의 계투로 京畿高타봉을 산발 6안타로 처리하고 7번 韓章燮이 3루타와 2루타등 1타점2득점을 올리는 활약에 힘입어 7-0, 8회 콜드게임승을거두고 역시 8강에올랐다.

지난 12월 창단한 浦鐵工高는 柳明善이 역투하며 10안타를 득점에 연결시켜 승리했다. 浦鐵工高는 大田高와 9회초까지 4-4 팽팽한 접전을 벌이다 9회말 마지막 공격에서 2사후 8번 金寅洙의 중전안타, 9번徐敬敎의 포볼로 주자 1, 2루를 만들고 1번 崔海明이 좌전안타를 때리자 2루주자 金寅洙가 무리하게 홈에대시했으나 포수 崔哲熊가 좌익수 金正卿의 송구를 놓치는바람에 金이생환,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었다.

◇제3일전적
▲2회전
대전고 002 100 001 4
포철공고 000 103 001 5
〈8회콜드게임〉
청주고 000 030 22 7
경기고 000 000 00 0
◇제2일 1회전전적
선린상고 200 000 000 2
부일고 001 000 000 1

光州一등 8強에

대붕기高校야구

▲제3일전적
▲2회전
서울고 000 500 000 5
심석종고 031 151 00× 11
〈7회콜드게임〉
춘천고 103 000 3 7
덕수상 000 000 0 0
〈5회콜드게임〉
광주일고 034 8× 15
남대전고 000 10 1
◇제2일전적
▲1회전
배문고 520 000 001 8
성남고 000 000 202 4
군산상 021 001 02× 6
대구상 000 000 100 1

아 세 아 선 물 센 타

SUMMER GRAND SALE (기간 : 81년7월15일~8월31일까지)

북경우황청심환 40% OFF	인삼녹용환 백봉환 40% OFF	당뇨병 특효약 옥천환 30% OFF	중국 길림산 녹용 3 BRANCHS 40% OFF
카나다 산 웅담 40% OFF	여행용 가방 삼손 나이트 30% OFF	물개, 뱀가죽 백 30% OFF	남녀청바지 $16.99
고급펜 크로스 30% OFF	피에르·카르뎅 와이샤스 30% OFF	피에르·카르뎅 벨트 30% OFF	기타 : 게브랄티 비타민, 전기다리미, 고급화장품등등

678 BLOOR ST.W. (고려식품 옆)
☎ : 530-0522, 3 조 지 섭, 김 영 철

인터뷰

워싱턴 매혹시킨 한국美
觀覽客 매일 2萬여명씩
美「5千年展」서 만난 李光杓장관
佛像보다 青磁빛깔에 감탄
W·P紙 "한국인의 特性과 忍耐 재발견" 評價
中·日 文化와 다른점을 인식

지난 24일 귀국한 李光杓 文公部장관은 10여일간 미국에 머무르면서 한국미술5천년전 워싱턴 전시회의 개막테이프를 끊는등 한국문화를 미국에 소개하는데 분주했다。다음은 李光杓문공부장관이 귀국하기전 한국일보 曺淳煥 워싱턴특파원과 만나 한국미술품에 대한 미국민들의 반응등에 대해 회견한 것이다。

—한국미술5천년전 순회전시도 이미 샌프란시스코、뉴욕등 여러곳을 거쳐 이번에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갖게됐는데 특별한 의미라도 있읍니까。

▲李장관=워싱턴은 정치도시라 전야제에 참석한 얼굴들도 예술인들뿐 아니라 정부고관、상하의원등 정치인들이 많았읍니다。이들은 삼국시대、통일신라시대의 우리 예술품들을 보고 많은 감명을 받은듯했읍니다。

개관한 다음날 워싱턴·포스트紙는『한국에 대한 미국사람들의 이미지는 6·25전쟁당시를 소재로한「매시」라는 TV프로그램의 영향을 받아 한국은 황폐하고 가난한 나라라는 이미지가 지배적인데 그이미지가 5천년문화전시로 달라질 것』이라고 매우 좋게 평가했읍니다。

또『섬세한 금속제품、청자의 흉내낼수없는 독특한아름다움과 빛깔을보고 미국사람들은 한국인의 특성과 인내를 재발견하게 될것』이라고 포스트紙는 썼읍니다。

워싱턴·포스트紙를 방문해서 간부들과 만나 대화를 나눌때 우리예술에나타난 슬기와 앞으로의 국가발전을연결시켜말하고『내말이 너무 정치적이냐』며 웃었더니 그들도 웃으며『한국에서온 국무위원답다』고 말하더군요。

—관람객이 많이 몰려든다고 들었는데?

▲李장관=개관한지 1주일이 지났는데도 하루에 2만명이 몰려들고있는 형편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선 하루 최고기록이 7천5백명이었는데 입구도 그렇게 많지않은 워싱턴의 2만명은 대단한숫자입니다。

워싱턴은지금관광시즌이기 때문에수도에구경온미국사람들이 백악관과의사당을 구경한후 스미드소니언 박물관에들러 우리문화재를봅니다。이들은 미국각처에서 모여든 사람들이라 우리의 문화가 미국각처로 확산되는셈이지요。워싱턴전시 2개월동안에 약2백만명이 우리문화를 감상하게 될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있읍니다。

—李장관은 5천년전을 위해 미국에 여러차례 왔는데 미국 사람들의 문화관이랄까 문화감각이 한국사람들과 어떻게 다르다고 보았읍니까。

▲李장관=우리나라와 미국은 문화권이 다릅니다。이때문에 상호이해가 필요합니다。미국사람들은 이질적인 우리문화에각별한 관심과 흥미를 갖더군요。

미국사람들이 지금까지 한국을 볼때는 대체로 동양문화권에 속한다는 정도로 막연한 것이었읍니다。한국문화에 대한 인식이 빈약한 것이죠。나는 미국정치인、예술인、언론인들에게 우리 문화가 중국이나 일본문화와 다르다는것을 강조했읍니다。미술작품은 인류공통의 언어라고 하지않습니까。물론 내가 강조하지 않더라도 그들은 이「인류공통언어」를 보고 느끼게될 것입니다。

세계문화사상 찬란한 문화가 이어져내려오지못하고 없어진것이 많습니다。미대륙의 잉카문화가 좋은 예입니다。우리민족은 우리조상의 슬기를 더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내자식이 짧더라도 우리예술품을보고 이해해달라고 했더니 모두들 웃더군요。

—5、6년전의 이른바 朴東宣사건、코리아게이트로 한국에대한 이미지가 나빠져미국에서는 선의의 한국사람들이 푸대접을 받았는데 이번 전시를 본 미국사람들 가운데 코리아게이트사건때 한국과 한국인에대해 잘못인식했었다고 말한 정치인이나 언론인은 없었읍니까。

▲李장관=미국사람들은 대체로 레이건의 경제정책이 어떻게 미국경제를 회복시켜 나갈것인가、소련팽창주의를 막으려는 레이건의 국방정책이 세계와 미우방 국가들에 어떤영향을 줄것인가등에 관심이 많더군요。이러한 미국의 새세계정책과관련해서 한국이 차지하는위치와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는 미국사람들이 많았읍니다。

불교권의 일본이나 중국사람들은 우리의 불상을 보고 감탄합니다。미국사람들이우리문화를 보고 신기하게 느끼고 감탄하는 것은 불상의 조각이아니라 청자의 담백하고 아름다운 빛깔입니다。가령 고려시대물잡아 동시대의 중국의 자기와 일본것과 비교해볼때일본의경우는자기가 아니라보기에 지나지않지요。

한국청자의 그 아름다운색조를보고 한국민족은 평화로운 민족이라는것을 느끼게되었다고 말하는 미국예술인이 있었읍니다。거기에 무슨 朴東宣사건의 잘잘못이 운위될 틈이 없지요。朴東宣사건은 이미 잊혀진 사건이 되어 있더군요。

—전시된 우리의 예술품들을 보고 미국사람들이감명을 받게되는 순서는 대개어떻습니까。

▲李장관=통일신라시대의 금관이 그들에게 가장큰 감명을 주는 것같았읍니다。그시대에 금을 그렇게 얇파한 금편으로 만들어 섬세한 금줄로 이어 나가고 거기에 부착된 비취가 하늘거리듯 흔들거리는 것을 보고 감탄하지않는 미국사람이 없었읍니다。그다음이 청자、백자이며 사실적인 그림에도 눈길이 많이 모아졌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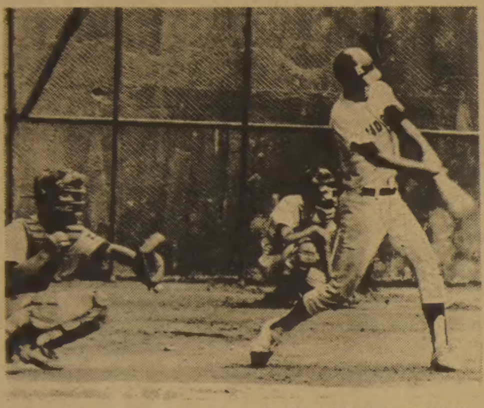
우리예술품 전시가 앞으로 한국상품수출에도 매우 좋은 영향을 주리라고 봅니다。통일신라시대에 탁월한 연금술로 금관을 만들어낸 한국사람들의 솜씨로 만드는 오늘의 상품이 역시 좋은 것이라는 생각이 미국사람들의 머리에 박히게 될것입니다。

【워싱턴=曺淳煥특파원·延着】

◇李光杓문공부장관이 스미드소니언연구소회장 딜론·리플리이박사와 함께 한국미술5천년전 워싱턴전시 개막테이프를 끊고있다。

'81 鳳凰大旗 의 고교로
전국49팀 强訓현장 올해의 스타는…
〈釜山·慶南〉

慶南高 安振雨·朴七星·田應天 호화타선
釜山은 金宗奭·李英昊에 기대
釜商도 鄭翔立·李弦澤 내세워
馬山高 폭발적打線、馬山商도 진출노려



◇先頭走者의 사명감 釜山의 선두주자 慶南高가 球都의 명예회복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며 연습하고있다。

『해 떨어질 날이 없다』고 할만큼 釜山은 고교야구에서 화려한 전통을 쌓아왔다。慶南高、釜山商高의 두 명문은 고교야구 태동기라할 40년대에 전국무대를 석권했으며 그후釜山高、釜山工高、慶南商高가 가세해 球都釜山의 위세를 떨쳤다。

그러나 이러한 釜山의 위세도 잠시 수그러들지 않을수 없었다。50년대후반 仁川、70년대초반 大邱의 돌풍으로 釜山은 몇해동안 고교야구 王座에서 밀려나야 했다。

요즘 釜山은 3번째 어두운 시기를 맞고있다。崔東原(경남고)、李闊雙(부산상) 楊相汶(부산고)등 슈퍼스타들이 남기고간 큰 공백속에서 釜山팀들은 새로운 생명의 줄을 애타게 기다리고있다。팀수는 慶南高、釜山商高、釜山高、慶南商高、東萊高의 5개팀으로 늘어났지만 지난해 어느 한팀도 중앙무대 결승에 오르지 못했으며 금년시즌도 전망이 밝지 못하다。

釜山의 선두주자라 할 慶南高마저 대통령盃1회전에서 우승팀 群山商高에、청룡기 3회전에서는 光州一高에 각각 연장전끝에 석패、탈락했었다。대진운이 좋지않았던 탓도 있다。이번 鳳凰大旗서도 慶南高는 서울의 최강인 善隣商高와 1회전서 붙게 됐다。

『어차피 큰 고비를 넘겨야 우승도 바라볼수 있을테니까』하는 것이 부임2년째를 맞은 連恢감독의 각오다。慶南高는 지난해 2冠王이었던 善隣商과 체전결승서 격돌、의외의승리를 거두기도 했다。

慶南高의 주력은 安振雨、朴七星、田應天으로 이어지는 호화타선。田은 청소년대표로 출전、美國과의 결승2차전서 결승점을 올린 재치있는 타자다。安振雨도 배팅의 세기가 잘 다듬어져 있다。

마운드에는 커브·컨트롤이 뛰어난 辛在根、1m87의 장신에 드롭·커브를 잘 던지는 1년생 정통파 趙容徹이 버티고 있어 비교적 안정된 셈이다。

외야수비가 다소 불안하나 2년생으로 짜여진 내야의 徐敏杓、朴鍾珍、申水龍등의 수비는 수준급이다。

楊相汶을 에이스로하여 전국무대를 뒤흔들던 釜山高는 금년 최악의 해를 맞고있다。라이벌 慶南高와의 대전서도 6전전패。

그러나 근성있는 朱性鎬감독이하 선수전원이 삭발로 새로운 결의를 다지고있다。左腕에이스 金宗奭(2년)이 지난해의 발목골절에서 회복、지난 7월부터 마운드에 오르기 시작해 팀에 새활력을 불어넣고있다。金에버금가는 스피드를 가진 1년생 李英昊에게도 기대가 크다。

기동력의 야구로 이름났던 釜山高는 금년 타격의 부진으로 그 특기를 살리지 못하고있다。그러나 대형포수 金成鉉만은 화랑기 예선서 5할대의 호조를 보였다。청소년대표팀 톱타자 崔桂榮의 준족도 釜山高의 큰 힘。

釜山商高도 釜山高 못지않은 어려운 고비를 맞고있다。지난 겨울 선배 李李감독이 慶南高에서 옮겨와 후배선수들을 기초부터 재교육하고 있는 단계。鄭翔立과 李弦澤의 계투로 마운드를 지키고 포수 鄭海德의 팀리드에 기대를 걸고있다。

慶南商高는 지난해보다 한결 성숙된 에이스 吳命錄의 피칭에 중앙무대 석권의 꿈을 키우고있다。1m90에육박하는 정통파투수 吳의 활약에 따라 慶南商高의 전파는 크게 오르내리게 될것같다。

거리로는 가까우면서도 釜山과 동떨어진 馬山야구는 지난해 馬山商이 청룡기대회 결승까지 진출함으로써새로운 주목을 받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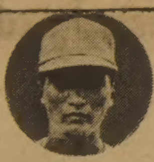
그러나 馬山의 금년 선두주자는 5년만에 팀을 재건한 馬山高。금년 원손 타자로서는 제일이라는 평가를 받고있는 林暻澤을 주축으로 폭발적인 타선을 구축하고 있다。

馬山商은 지난해 언더드로의 에이스 朴東洙에 힘입어 청룡기 준우승을 차지했으나 금년엔 다소 침체된 분위기。아직 한번도 중앙무대에 오르지 못했다。그러나 첫중앙무대진출인 이번 鳳凰大旗서 꼭 좋은 성적을 올리겠다고 柳永洙감독의 결의가 대단하다。

글 方錫崗 기자
사진 白炯實 기자

◇慶南高 田應天

◇釜山高 金成炫



◇釜山高 金宗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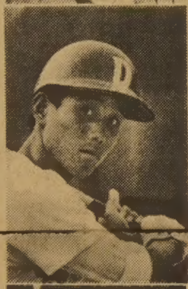
◇馬山高 林暻澤

'81 鳳凰大旗 의 고교로
전국49팀 强訓현장 올해의 스타는…
〈忠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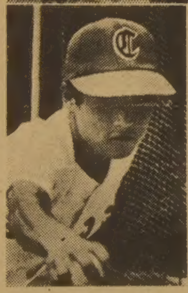
連覇노린 北一 金相國 曺良根 崔在明 버텨
世光의 傳統은 李想鐵·閔文植 손에
大田은 투수 韓年大·金正澤에 기대
꾸준한 淸州엔 李相明·李重和 건재

◇天安北一 崔在明

◇世光 李想鐵



◇大田高 柳海德



◇淸州高 李揆晃

忠淸지방은 비교적 뒤늦게 고교야구무대에 뛰어들었다。그러나 욱일승천의 忠淸세력에、球都를 자처하던 釜山 仁川 서울 大邱등의 기성강호들은 가시방석에 앉듯 불안한 처지로몰리게됐다。

77년 公州高가 대통령盃를、世光高가 화랑기를 제패하며 일기시작한 忠淸의 야구바람은 80년 놀라운 맹위를 떨쳐 北一高가 鳳凰大旗와 화랑기를、世光高가 대봉기를 휩쓸며 전통을 자랑하던 타지방 명문고들을 차례로 KO시켰다。

「태양의 아들」임을 노래하는 여름의 팀 天安北一高는 창단 3년만인 지난해 鳳凰大旗서 처음 전국정상에 올라선 여세를 몰아 금년 대회2連覇의 큰꿈을 키우고있다。

『여름이 되어야 힘이 솟는 모양입니다』

李熙秀코치의 말처럼 北一은 금년시즌 첫대회인 대통령기 결승서 群山商에게 우승을 놓치더니 청룡기서는 1회전에 탈락하고 말았다。

서울운동장을 능가하는 훌륭한 잔디그라운드와 부속시설을 갖춘 北一은선수들의 기량면에서도 우승후보로 손색이 없다。청소년대표팀 주전포수로 활약한 金相國(3년)、역시 청소년대표팀 유격수였던 曺良根(2년)、1m80의 장신에 투타의 중심인 崔在明(3년)등은 北一이 자랑하는 명장들이다。金相國은 투수리드가 좋으며 송구동작이 빠르고 강한어깨를 가져 고교최고의 포수로 평가되고있다。타력、선구안도 대단히 좋아 3번을 지킨다。

曺良根은 내야수비의 폭이 넓고 빠른발과 재치있게 밀고당기는 타법을 구사하는 부동의 1번타자다。

北一의 불안은 마운드에 있다。지난해의 李相君처럼 확실하고 컨트롤좋은 투수가 없어 河仁秀와 安聖洙의 계투에 의존하고 있다。3루수 崔在明도 가끔 지원에 나서지만 그런 부담때문인지 최근 崔在明의 타격이 부진、새로운 고민을 안게됐다。

北一에 앞서 忠南을 대표하던 강호 大田高는 금년시즌이 열리기도전에철석같이 믿고있던 투수 李曉榮이 유급선수로 등록이 묶이는 바람에 실의에 빠져있다。게다가 금년2월 金榮彬감독후임으로 온 동문 남성하 감독이팀재건을 위해 강훈을 계속하다 선수들의 반발에 부딪쳐 팀의 중심이 되어야할 2년생11명중 9명을 잃고 兩감독도 물러나는 진통을 겪었다。3번째 바통을 이어받은 姜志明감독이 현재 볼배합이 좋은 투수 韓年大(3년)、아웃·코스의 밀어치기가 일품인 선두타자 金正澤(3년)、팀의 중심타자인柳海德(3년)등으로 상위입상을 노리고 있다。

忠北의 명문 淸州高는 방학중에도 연습장에 빠지지않는 대선배(18회) 南光鉉교장의 격려를 받으며 전국대회 첫우승의 날을 기다리고 있다。팀부활 8년째를 맞은 淸州高는 금년청룡기서 서울의 강호 中央高를 10-5로 대파、기세를 올렸다。

4년동안 淸州高를 지도、청룡기4강까지 이끌어 올렸던 田基萬감독이 두달전부터 다시 팀을맡아 淸州高의 팀원정비에 한창이다。

淸州高의 중심은 2년생。1m81、72kg의 좋은체격을 가진 李揆晃은 지난겨울의 어깨고장에서 재기、훌륭한 슬라이더와 커브로 마운드를 지키고 있다。1년생인 투수 金鎭圭는 1m68의 작은키지만 어깨위·아래·옆에서 볼을 던지는 다양한 피칭·폼으로 淸州高의 선발투수로 활약한다。淸州高는 그밖에도 장타력있는 李相明(3년)、발빠르고 방망이가 야무진 李重和(2년)로 鳳凰大旗를 대비하고있다。

30여년간 忠北야구의 대명사로 불리던 世光高는 77년 화랑기에 이어 80년 대봉기를 석권、오랜 노력의 결실을 거두기 시작했다。大田高에서 옮겨와 2년전부터 世光을 지휘하고 있는 金純聲감독은『이젠 중앙대회의 우승을 노릴때가 된것같다』고 성숙된 팀전력을 자랑한다。

世光도 1·2년생이 주축。팀리더인 李想鐵은 1학년때부터 주전포수로 활약、강한 어깨와 빼어난 타력을 보여왔다。투수 閔文植의 졸업으로 투수력은 약화됐으나 주장 全勇星(3년)을 비롯한 타선은 고르고 날카롭다。

글 方錫崗기자
사진 徐鍾道기자

연예話題

蘇聯映畵에 멜러물 政治드라마에 염증

소련판「보통사람들」의이야기인「모스크바는 눈물을 믿지않는다」라는 영화가 소련영화가에서 공전의대히트、화제를 일으키고있다。배우출신의 우라지미르·맨쇼프라는 무명감독의 첫작품인「모스크바는…」는 상영5개월에 무려 7천만명이라는관객을 동원、소련영화사상 최고의 히트작으로 전해지고있다。

영화의 제명을볼때 공산주의의 냄새가 없지는 않으나「눈물」이라는 단어가 말하듯이 여성취향의 멜러물임을 알수있다。영화는 모스크바에 있는한 여성근로자 기숙사에서 부터 시작된다。직장은 다르지만 같은 방을 쓰는 세처녀인 카테리나와 류드미라、그리고 안토니나가 주인공이다。때는 1958년、3명가운데 카테리나의 이야기가 줄거리를 이룬다。【外誌=鄭】

佛國寺분규 慶州지원 申請기각 假處分

【慶州=鄭】佛國寺주지부임을 둘러싼 대한불교조계종분규는 총무원으로부터 주지임명을 받은 金月權스님(46)이 29일 경북도에 주지인등록을 마치고 관할법원인大邱지법 慶州지원이 前주지崔月山스님측의 주지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함으로써 분규발생 15일만에 표면상 일단락됐다。

한국일보
구독 신청은
: (416)533 · 2361

法堂 뺏고 뺏기기 亂鬪劇
月精寺신임住持側、舊住持側 女신도들과
警察출동 수습나서

【平昌=鄭】한불교 조계종 제4교구(강원도일원)본사인 강원도 平昌郡珍富面五臺山 月精寺의 주지임명을 둘러싼 전주와 신임주지의 지지세력들이 30일 주먹을휘두르며 실력대결을벌여 경찰이 진압에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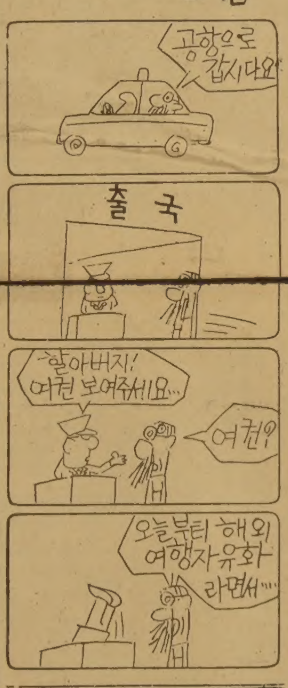
30일하오2시30분께 전주지 張喜燦스님측을 지지하는 신도등 3백여명이 月精寺법당앞 만세루를 점거한 신임주지 金能鍵스님측의 50여신도를 둘러싸고 난투극을벌였다。

이 사고로 張喜燦스님의 지지세력인 이성희스님등 10여명이 부상을입고 그자리에누워 다른 지지세력과 함께 농성중이다。

신임 金주지 지지세력 40여명은 이날 상오5시30분께 月精寺법당을 전격적으로 점거했다가 전임주지측 신도 50여명에의해 9시께 1㎞가량 떨어진 月精寺 정문앞까지밀려났으나 하오1시께 다시밀고들어가 법당앞 만세루를점거했다。

전주지 지지세력들은 이날 하오 3시께 3백여명으로인원을 늘려 신임주지세력을 몰아내기의해 육탄공격을 개시하자 柳來聲 강원도경찰국장이 1백여기동경찰관을 대동、현장에출동、사태수습에 나섰다。

두꺼비 안의섭



꽃도매상
437 CARLAW ST.
☎ · 465-8167

Grant Brown

차가 필요하십니까?
이한구를 찾아주십시오.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82년형 J-2000
G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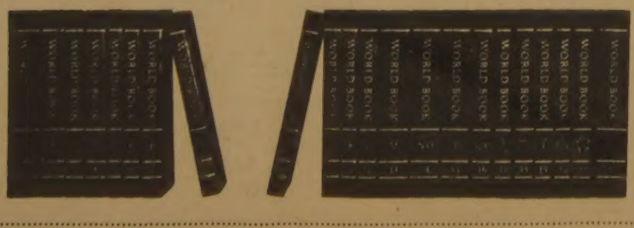
잘 정비된 백여대의
Used Car들이 있읍니다.

1575 WESTON RD.
WESTON, ONT
(B) 247-7161
(R) 977-2731

World Book-Childcraft of Canada

아직도 World Book 을 구입 못하셨읍니까?
World Book 은 북미에서 가장 많이
읽히고 있는 백과사전의 하나이며,
유치원부터 대학까지의 과정에 꼭 필요한
책입니다.

★29,000이상의 사진, 그림, 지도및 챠트 포함
★어린이를 위한 Special Volume "Child Craft"



문의처 : 533-2363 (9시~4시) 769-4366(저녁7시이후)

Addison

BUICK
PONTIAC
CADDILLAC
Cadillac

원재훈

새차와 중고차 LEASING

전 북미주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GM의 신형모델 J2000가 에디슨에 나와 있읍니다. 각종외국 수입품보다 Engineering, Technology, Gas Mileage에서 월등하며 GM역사상 가장 센세이숀널 J2000을 시운전 해보시고 북미의 이 새로운 Feeling을 체험해 보세요.

ADDISON BAY at COLLEGE
(B) 964-3211 Howard Won

濟州·誠信女·韓社大·慶南大 승격

내년 綜合大學校된다

文敎部 順天大등 8개大學도 新設키로

문교부는 28일 82학년도에 국립濟州大와 사립인 誠信女大, 韓國社會事業大, 慶南大 등 4개단과대학을 종합대학교로 승격시키고 順天大등 8개대학을 신설키로 했다.

종합대학이될 4개 단과대학은 설치학과수가 20개학과, 졸업정원 1천명 이상으로 교수확보와 교육시설및 학교운영상황이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아 승격한것이다.

8개대학의 신설은 대학교육기회의 지역균형을 유지하기위한것으로 설립자의 육영정신및 재력을 감안하고 특히 외국어교육강화에 역점을 둔것이다.

이로써 전국의 대학및 대학교는 현재의 89개교(종합대34개교·단과대55개교)에서 이미 발표된 1개신학대학을 포함, 98개교(종합대38개교·단과대60개교)로 늘어났다.

문교부는 82학년도 대학정원조정내용은 오는 8월말께 확정한다고 밝혔다.

승격및 신설될 대학은 다음과같다.

◇종합대학교승격(괄호안은 위치및 학장) ▲국립濟州대학(濟州市·玄平孝) ▲사립誠信여자대학(서울·趙炘烘) ▲〃韓社대학(大邱·李泰榮) ▲〃慶南대학(경남馬山·尹泰林)

◇신설단과대학 ▲국립順天대학(전남順天·李相來) ▲사립釜山외국어대학(부산·鄭泰星) ▲〃韓國이슬람대학(경기龍仁·李華植) ▲〃韓國대학(경기城南·金東錫) ▲〃水原대학(경기華城·李鍾郁) ▲〃翰林대학(강원春川·尹德善) ▲〃省仁대학(전남光州·朴基仁) ▲〃韓國신학대학(大邱·徐正吉)

名監督·안토니오니 마지막作品 촬영

『붉은사막』등 이색적인 작품으로 널리알려진 이탈리아 출신의 영화감독 미켈란젤로·안토니오니가 또한편의 영화를 만들고있다.

本報 무료배부

— 우편파업기간중 —

敎育稅50%가 부과되면 附加稅가 財産稅앞질러

1백평 土地1만5백원이 2만4천8백원

5백만원建物1만6천원이 3만8천5백원

防衛稅등합치면 本稅의 倍이상

재산세의 50%를 교육세로 징수키로한 정부방침에 대해 조세부담이 많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美國人은 왜 離婚이 많은가

US뉴스앤드 월드리포트誌

◇이혼수속을 밟고있는 美國의 한夫婦. 높아져가던 이혼율이 잠시 소강상태를 이루고있다.

미국총인구의 5·8%에 해당하는 9백70만9천명이 결혼에 실패한 사람들이다. 이들중 남자가 3백87만3천명, 여자가 5백83만6천명으로 여자가 더많다. 「US뉴스·앤드·월드·리포트」誌는 최근호에서 28년간 이혼관계전문변호사로 일해온 허버트·그리버만을 인터뷰, 「離婚의 어제와 오늘」을 밝히고 있는데 그내용을 정리해본다.

—이혼율이 줄었다고 보는가?

—이혼율이 증감을 보이지 않고 현상유지를 하기시작했다. 아마도 1년내지 2년내에 떨어지기 시작할것으로 본다. 경제난이 이혼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있다.

離婚전문 辯護士가 말하는 家庭파탄

돈 너무 많거나 적어도 危險

再婚해도 失敗할 확률 많고

子女 있다고 破鏡 방지 안돼

全州에 僞造지폐 천원券

복사기로뜬것, 米穀商서…헌돈섞여

韓銀지점 發見신고

【全州=聯】 全州에서 1천원권 위조지폐 1장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韓·美、中共공동진출"

기본스委長 訪中때 鄧에 提議사실밝혀

【로마AP=聯】

訪美 商工委의원단 國會에 報告

금지水域 난속強化

韓·日漁業공동위, 9개항 공동성명

지난28일 東京에서 개막된 韓日漁業공동위원회 제16차정기회의는 양국漁民들이 지켜야할 어업질서를 강화하기로 합의하고 30일 폐막했다.

머리칼손질 잘해야

생활메모

수영장을 다니는 주부들이 늘어나고있다. 수영을 자주하는경우 머리손질과 보호에 신경을 써야한다. 바닷가를 다녀온 후에도 머리손질을해두어야 건강한 머리털을 유지할수 있다. 특히 바닷바람은 염분이 듬뿍 들어있어 머리카락을 건조하게하고 거칠게 한다. 바닷물속에도 염분이외 마그네슘이 포함돼있어 머리털을 끈적끈적하게 하고 상하게 한다. 수영을 하고난 후나 해수욕을 하고난 뒤에는 반드시 샴푸와 린스를 사용해서 염분이나 마그네슘및 기타 불순물을 깨끗하게 씻어내도록 한다.

린스를 평소보다 조금 많이 사용해서 쓰면 린스의 막이 모발을 보호해 주어서 모발이 상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수영 후 머리 털이 너무 많이 거칠어져 있으면 샴푸한후 달걀을 미지근한 물에 풀어서 헹구면 상한 머리결을 회복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상한 머리털은 건조하기때문에 쉽게 끊어지므로 브러시는 세게 하지 않는다. 부드러운 브러시로 하루 두번정도 빗질을 하고, 2일~3일에 한번씩 세발한다. 세발 후에는 선풍기나 헤어·드라이어로 머리를 말리지 말고 자연 바람이나 부채를 이용해서 말려야 머리 보호에 도움이 된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83-2361

모두들 위해 生 <163>

趙善作 禹慶熙畵

그림자놀이 ⑦②

서울한의원

● 30여년간 서울에서 한의원 경영
● 대한한의사협회장외 한의학발전공로표창장 10여회 수상.
* 진료과목 : 한방내과·신경과·부인과·청구과·산후보약(왕진십)
주소 : 10 Blackfriar Ave, #216 Weston, Ont. (Kipling·Dixon)
한의사 김 장 석
☎ : 247-9347

제3회 대사배 쟁탈 골프대회

장 소 : CASTLEMORE COUNTRY CLUB
시 일 : 1981년 8월8일(토) (10시30분 부터)
참가자격 : 북미거주 한인
시 상 : ●ANNUAL CHAMP
●LOW GROSS 3등까지
●NET A 2등까지(핸디캡 18이하)
●NET B 2등까지(〃 19이상)
●NET C 2등등까지(〃)
●NEAREST HOLE
●LONGEST DRIVE
●HONEST GOLFER
●LUCKY SEVEN

● 사전에 등록하시지 못한 분들은 10시까지 나오셔서 등록하시고 TEAM을 구성하는데 협조바랍니다.
● 상 품 :
●J. C. GOLF ENTERPRISE CUSTOM DRIVER 85.00상당
●8" NYLON GOLF BAG 47.00상당
●7" 〃 〃 〃 40.00 〃
●UP SHOT PUTTER 38.00 〃
●H/COVER(SET OF 4) 18.00 〃
이외 다수 상품이 준비돼어 있읍니다.
● 연락처 : 정 정 홍 678-2444

토론토한인골프협회 회장 정정홍